



해외보험리포트

태국 | 말레이시아 | 호주

김성균, 김연희, 이승주
장윤미, 김윤진, 이소양

ki2i 보험연구원

목 차

• 요약	1
I. 태국	
1.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3
2. 보험시장 현황	13
II. 말레이시아	
1.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25
2. 보험시장 현황	34
III. 호주	
1.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52
2. 보험시장 현황	61
IV. 시사점	
1. 태국	73
2. 말레이시아	73
3. 호주	74
• 부록	76

표 차례

〈표 I-1〉 태국 주요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 변천	4
〈표 I-2〉 보험 감독기관의 역사	6
〈표 I-3〉 상품 종류 및 계약 형태별 부담률	6
〈표 I-4〉 태국 보험감독위원회 주요 권한	7
〈표 I-5〉 태국 주요 의무보험	12
〈표 I-6〉 태국 보험산업 원수보험료 규모 변화 추이	14
〈표 I-7〉 연도별 태국 보험시장의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	14
〈표 I-8〉 아시아 주요국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0년 기준)	15
〈표 I-9〉 태국 생명보험 원수보험료, 총자산, 영업이익의 변화 추이	15
〈표 I-10〉 생명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16
〈표 I-11〉 생명보험 특약별 원수보험료	17
〈표 I-12〉 태국 생명보험업 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18
〈표 I-13〉 태국 생명보험업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변화 추이	18
〈표 I-14〉 태국 생명보험업 자산운용 변화 추이	19
〈표 I-15〉 태국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총자산, 영업이익의 변화 추이	20
〈표 I-16〉 태국 손해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21
〈표 I-17〉 태국 기타특종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22
〈표 I-18〉 태국 손해보험업 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23
〈표 I-19〉 태국 손해보험업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변화 추이	24
〈표 II-1〉 말레이시아 주요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 변천	26
〈표 II-2〉 말레이시아 금융 부문 청사진 2022~2026 목적별 보험산업 육성방안	27
〈표 II-3〉 라부안 내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종류별 최저 납입자본금	29
〈표 II-4〉 투자 한도가 존재하는 자산 종류와 한도	32
〈표 II-5〉 말레이시아 주요 의무보험	33
〈표 II-6〉 아시아 주요국의 보험산업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2년)	35
〈표 II-7〉 말레이시아 전체 보험산업 권역별 원수보험료(2022년)	36
〈표 II-8〉 말레이시아 내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37
〈표 II-9〉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 원수보험료, 총자산, 영업이익의 변화 추이	38
〈표 II-10〉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39
〈표 II-11〉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40

〈표 II-12〉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	41
〈표 II-13〉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변화	42
〈표 II-14〉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 원수보험료 성장 추이	43
〈표 II-15〉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 상품별 보험료	43
〈표 II-16〉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 운영사별 순보험료수입 및 시장점유율	44
〈표 II-17〉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 판매채널별 비중(2021년)	45
〈표 II-18〉 말레이시아 전통형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총자산, 영업이익 변화	46
〈표 II-19〉 말레이시아 전통형 손해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46
〈표 II-20〉 말레이시아 전통형 손해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47
〈표 II-21〉 말레이시아 전통형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	49
〈표 II-22〉 말레이시아 일반타카풀 원수보험료 성장 추이	49
〈표 II-23〉 말레이시아 일반타카풀 상품별 원수보험료	50
〈표 II-24〉 말레이시아 일반타카풀 운영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51
〈표 III-1〉 호주 주요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 변천	53
〈표 III-2〉 호주 주요 의무보험	59
〈표 III-3〉 아테 선진국의 보험산업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2년)	61
〈표 III-4〉 호주 보험산업 업권별 원수보험료 변화 추이	62
〈표 III-5〉 호주 생명보험 순보험료, 총자산, 세후 이익 변화 추이	63
〈표 III-6〉 호주 생명보험 상품별 연간보험료	63
〈표 III-7〉 호주 생명보험회사별 연간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65
〈표 III-8〉 호주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	66
〈표 III-9〉 호주 생명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66
〈표 III-10〉 호주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총자산, 세후 이익 변화	67
〈표 III-11〉 호주 손해보험 상품별 수입보험료	68
〈표 III-12〉 호주 손해보험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70
〈표 III-13〉 호주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	71
〈표 III-14〉 호주 손해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71

그림 차례

<그림 I-1> 원수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상품별 점유율	16
<그림 I-2> 생명보험 특약별 구성비	17
<그림 I-3> 원수보험료 기준 손해보험 상품별 점유율	21
<그림 I-4> 원수보험료 기준 기타특종보험 상품별 점유율	22
<그림 II-1> 말레이시아 전체 보험산업 권역별 원수보험료 비중(2022년)	36
<그림 II-2>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2022년)	39
<그림 II-3>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 상품별 보험료 비중(2022년)	44
<그림 II-4> 말레이시아 전통형 손해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2022년)	47
<그림 II-5> 말레이시아 일반타카풀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2022년)	50
<그림 III-1> 호주 생명보험 상품별 연간보험료 비중(2022년 하반기)	64
<그림 III-2> 호주 손해보험 상품별 수입보험료 비중(FY2023)	69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해외 신흥 및 선진 보험시장에 해당하는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이상 3개 국가의 보험 관련 규제 및 시장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두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이며,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27위이다.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및 생명·손해보험회사 투자 규제가 꾸준히 완화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현지 보험회사 지분에 대한 외국인 소유 한도는 보험감독위원회의 재량하에 최대 49%까지, 보험감독위원회의 추천과 태국 재무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49% 이상의 지분 소유도 허용되고 있다.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저금리 지속에 기인하여 변액보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21년까지 5년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경험했다는 점,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기간 발생한 상당 규모의 영업손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말레이시아는 다문화·다민족국가로서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이슬람금융의 허브국가로서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다. 보험감독당국인 중앙은행은 보험침투도 제고 및 미소보험 계약자 수 확대를 목표로 금융 부문 청사진 2022~2026을 발표하여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슬람 율법에 기반한 타카풀시장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업에 속하는 가족타카풀 부문에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 국내 보험회사는 가족타카풀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진출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효과적인 인구·이민 정책과 더불어 1차 산업과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의 공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국가다. 최근 금융서비스 면허 취득 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선진 금융 국가로서 입지가 더욱 다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14위이며, 외국 자본의 시장 진입에 우호적이므로 외국 보험회사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성숙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손해보험시장은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약화 등으로 2015년 이후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

I

태국

1.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가.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변천

- 태국에서 보험 법안은 각료회의, 하원의원 또는 유권자 5만 명의 청원을 통해 발의될 수 있으며, 법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태국 보험감독위원회(Office of the Insurance Commission: OIC), 정부 내각, 입법자문기관(Council of State), 의회 위원회, 왕실의 승인을 순서대로 받아야 함
 - 새로운 법안의 초안 작성은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초안이 작성되면 검토를 위해 정부 내각에 제출됨
 - 이후 추가 검토를 위해 입법자문기관(Council of State)으로 전달되며, 입법자문기관은 정부 내각의 수정안을 검토하고 재수정함
 - 정부 내각과 입법자문기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안 초안은 의회로 보내지고, 추가 검토를 위해 의회 위원회로 전달됨
 -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각각에서 세 차례의 독회를 거쳐야 하며, 의회 승인 시 왕실의 승인을 위해 군주에게 보내짐
 - 군주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검토를 위해 의회로 반송되며, 군주 승인 이후 왕립 태국 법률 저널인 Royal Thai Government Gazette에 게재되면 정식 법으로 채택됨
- 보험 법안은 장관, 태국 보험감독위원회 위원이 발행한 선언, 규칙 및 명령에 따라 세부 규정으로 보완됨
- 태국에서는 1911년부터 정부 승인하에 보험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험산업 관련 규정은 민법 및 상법의 세부 규정을 통해 1925년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후 새로운 법의 도입 및 개정을 통해 보험 관련 법률은 꾸준히 발전해 왔음
 - 태국의 생명보험은 1900년에 영국 에퀴터블 생명보험회사(Equitable Insurance)가 태국의 동아시아회사(East Asiatic Co.)를 대리인으로 임명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전문 건강보험회사는 1979년 최초로 설립되었음

(표 I-1) 태국 주요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 변천

연도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및 규제
1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rtnerships and Companies Act : 보험회사가 정부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도록 요구
1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vil and Commercial Code : 최초로 보험에 관한 세부 규정을 도입
19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Non-Life Insurance Act, B.E. 2510 : 각각 외국 생명·손해보험회사가 지점 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최초의 생명·손해보험법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cial Security Act, B.E. 2533(1990) : 민간 부문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 대해 급부를 제공하기 시작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Non-Life Insurance Act, B.E. 2535(1992) : 1967년 법률을 대체, (재)보험회사에 대한 면허 및 운영 요구 사항 명시, 민영건강보험 규제 시작 Protection for Motor Accident Victims Act : 무과실 기준 의무 자동차보험을 도입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tional Health Security Act, B.E. 2545(2002) : 보편적의료보장제도(Universal health-care Coverage Scheme: UCS)를 도입하여 자영업자 및 비공식 부문 근로자에게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제공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tional Health Act, B.E. 2550(2007) : 보편적의료보장제도의 치료 범위 확장, 국민보건의회(National Health Assembly; NHA) 설립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Non-Life Insurance Act(No. 2), B.E. 2551(2008) : 위험기반자기자본(Risk-Based Capital: RBC) 제도 도입, 보험소비자보호기금 설치, 외국인 소유 한도를 25%에서 49%로 증률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duct Liability Act 및 Consumer Case Procedure Act 도입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 Insurance Act, B.E. 2558 (2015); Non-Life Insurance Act, B.E. 2558(2015) : 보험회사의 허용 자본구조, 보험기금의 출자 및 관리, 보험회사의 청산절차 등에 관해 1992년 법률 개정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nistry of Finance Notification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태국 보험회사에 대해 외국인이 49%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¹⁾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Amendments to the Life/Non-Life Insurance Act, B.E. 2535(1992) : 보험중개인에 대한 의무, 규정 위반 및 업무 수행과 관련된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 등을 새롭게 추가, 온라인 채널과 관련된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gulations on Receiving and Considering Insurance Complaints 2021 :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에 제출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²⁾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BE 2562(2019) : 데이터 처리·보호의 필요성 및 이에 관한 보험회사의 요구 사항 명시

주: 1) Baker Mckenzie(<https://resourcehub.bakermckenzie.com/en/resources/asia-pacific-insurance/asia-pacific/thailand/topics/insurance-regulatory-landscape-and-key-considerations-for-ma-transactions>) 참고 바람

2) 보험회사는 태국 보험감독위원회로부터 관련 민원서류를 수취한 시점에서 10일 이내에 대응해야 함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 태국에서는 1987년 사적 연금을 시작으로 근로자재해기금, 퇴직금, 보편적최저연금, 퇴직저축기금 등의 다양한 사회보장시스템·연금제도가 꾸준히 발전해 왔음

- 1987년 Provident Fund Act, B.E. 2530(1987)의 도입으로 사적 연금을 제공하기 위한 자발적 적립 기금에 대한 규제체계와 함께 기금 설립, 기여금 및 급부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2007년 개정안을 통해 퇴직 시 정액 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둘 이상의 투자 정책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2015년 개정안을 통해 기여율의 상한선이 확대되었음
- 1990년 Social Security Act, B.E. 2533(1990)의 도입으로 민간 부문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이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개정안을 통해 국가 연금이 도입되었고, 2011년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장 시스템의 제공이 비공식 부문 근로자에게까지, 2015년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장시스템이 임시직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되었음
- 1992년 Securities and Exchange Act, B.E. 2535(1992)의 도입으로 적립기금의 자산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
- 1994년 Workmen's Compensation Act, B.E. 2537(1994)의 도입으로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Office)가 근로자재해기금을 통해 근로자의 재해기여금 및 급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형성되었으며, 2018년 개정안을 통해 보장 급부가 증가하였음
- 1998년 Labour Protection Act, B.E. 2541(1998)의 도입으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형성되었으며, 2017년 개정안을 통해 법정 퇴직연령이 60세로 연장되었고, 2019년 개정안을 통해 퇴직 및 출산 시의 혜택이 증가하였음
- 2009년 Order of the Ministry of Interior on the Payment of Old Age Allowance by Local Authorities, B.E. 2552(2009)의 도입으로 1993년에 도입된 노령 현금 수당이 60세 이상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최저연금(Universal Minimum Pension; UMP)으로 확대되었음
- National Savings Fund Act, B.E. 2554(2011)의 도입으로 2012년, 국가가 지원하는 Pillar III 자발적 퇴직저축기금인 국민저축기금(National Savings Fund: NSF)이 설립되었음

나.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

○ 태국에서는 1929년 최초의 보험 감독기관 보험관리부(Division of Insurance Control)가 창설되었으며, 현재는 Insurance Business Regulation and Promotion Committee Act, B.E. 2550(2007)에 따라 태국 보험감독위원회가 보험 감독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음

〈표 I-2〉 보험 감독기관의 역사

연도	보험 감독기관 명칭 및 소속
1929	• Insurance Division : Office of Permanent Secretary of Ministry of Commerce and Transport
1933	• Insurance Company Control Division : Department of Commerce Registrat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1941	• Insurance Company Control Department : Partnership/Company Division, Department of Commerce Registration
1952	• Insurance Division : Department of Commerce Registration
1968	• Insurance Division : Office of Permanent Secretary,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1972	• Insurance Office : Office of Permanent Secretary, Ministry of Commerce
1979	• Insurance Office : Ministry of Commerce
1980	• Department of Insurance : Ministry of Commerce
2007	•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 : Ministry of Finance ¹⁾

주: 1)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은 Ministry of Finance의 감독을 받음

자료: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https://www.oic.or.th/en/consumer/about/recommended>)을 기초로 작성함

○ 태국 보험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부담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에 이를 보고함

- 상품 종류 및 계약 형태에 따라 부담률은 상이하며,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0.3%까지 부담률이 정해져 있음

〈표 I-3〉 상품 종류 및 계약 형태별 부담률

상품 종류	구분	부담률(%)	
비투자성 생명보험	정기납	신계약	0.30
		보유계약	0.15
	일시납	0.15	
투자성 생명보험	정기납·일시납	0.10	
손해보험	총 수입보험료 10억 바트 미만		0.30
	총 수입보험료 10억 바트 이상 50억 바트 미만		0.25
	총 수입보험료 50억 바트 이상		0.20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1)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권한

- Life Insurance Act, B.E. 2535(1992) 및 Non-Life Insurance Act, B.E. 2535(1992)에 따른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권한에는 보험회사 승인 및 면허 발급 외에도 결정, 명령 및 집행, 모니터링 및 관리 등 다양한 내용이 있음

〈표 I-4〉 태국 보험감독위원회 주요 권한

분류	내용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공공 유한 보험회사 승인 • 내각의 동의를 얻어 외국 보험회사의 태국 내 지사 설립 승인 • 보험회사 합병 승인 • 보험상품 구성 및 보험료율에 대한 승인 • 재보험 계약 승인
발급 및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보험중개자,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에 대한 면허 발급 • 투자 규정 발행 • 위험기반자기자본(RBC) 관련 규정 발행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준비금 및 자본금의 규모와 구성 결정 • 면허 취소 결정¹⁾ • 중개 수수료를 결정
명령 및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산 명령 • 구조 조정 절차 집행 •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금 증액 명령
모니터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재무 상태 모니터링 • Protection of Motor Vehicle Accident Victims Act의 행정 관리

주: 1)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②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③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④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⑤ 존속이 보험소비자와 대중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소를 결정함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2)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단기 계획

- 태국 보험감독위원회가 발표한 5개년 보험산업 개발계획 Insurance Development Plan Vol. 4 (2021~2025)에 따르면, 위원회의 향후 5년 동안 규제 우선순위는 소비자보호, 디지털 기술의 응용, 태국 보험산업의 국제적 홍보에 있을 것임
 - Vol. 1(2006~2011)에서는 보험감독권 구조 개편, 생명보험법 및 손해보험법 개정, 국민의 요구와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었음

- Vol. 2(2010~2014)에서는 보험산업이 사업 운영 및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 헤지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험기반 감독 및 심사, 보험제도 역량 구축에 중점을 두었음
- Vol. 3(2016~2020)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보험산업 규제를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의 보험급부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 Vol. 4(2021~2025)에서의 주요 4대 전략은 ① 새로운 환경에 맞춰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조정하기 위한 보험사업 개발 및 장려, ② 공공·민간 부문의 보험리스크 관리문화 조성, ③ 경제 및 사회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험제도의 역할 증진, ④ 보험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험 인프라 개발임

3) 보험회사의 면허제도와 사업 범위

- 태국 내 보험 면허는 생명보험 면허와 손해보험 면허 두 가지로 구분되며, 하위 등급의 면허는 존재하지 않음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면허를 보유할 수 있는 법인은 ① 관련 보험사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설립된 태국 보험회사, ② 외국 지점 사업 면허를 보유한 외국계 보험회사임
- 1997년 13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신규 보험 면허 발급 이후로, 현재까지 신규 발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태국기업이 태국에서 보험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진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것임
 - 신규 면허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추가 합병 등이 지속해서 필요하기에 신규 면허 발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임
- 재보험 면허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보험업을 수행하는 데 특정한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며 2001년 이후 종합보험회사의 운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2019년부터 수수료 없는 보험상품을 순수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신규 시장 진입자와 순수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려는 기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면허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 개인상해보험 및 민영의료보험 영역은 손해보험업에 속하지만, 특약 형태로 생명보험회사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음

4) 보험회사 최저 자본금과 지급여력제도 규제

- 태국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에 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이 불명확하며, 업종별로 상이한 최소 자본금 요건 및 예치금 요건을 지니고 있음
 - 생명(재)보험회사의 최저 자본금 요건은 1997년 이전 면허를 발급받은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5,000만 바트, 1997년 이후로 면허를 발급받은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5억 바트이며, 2008년부터 위험기반자기자본(RBC) 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채 관련 요구 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함
 - 최저 자본금 요건과는 별도로 보증금 2,000만 바트를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함
 - 손해(재)보험회사의 최저 자본금 요건은 1997년 이전 면허를 발급받은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3,000만 바트, 1997년 이후로 면허를 발급받은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3억 바트이며, 2008년부터 위험기반자기자본(RBC) 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채 관련 요구 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함
 - 손해보험업은 화재, 해상 및 운송, 자동차, 기타 4가지로 구분되며, 최저 자본금 요건과는 별도로 사업 부문당 350만 바트의 보증금을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함
- 위험기반자기자본(RBC) 제도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모든 보험회사는 최소 요구 자본적정성비율(Capital Adequacy Ratio: CAR) 140%를 충족하여야 함¹⁾
 - 기존 기준은 2019년 도입된 RBC2에 따라 지속해서 진화할 것으로 판단됨
 - 생명보험업의 CAR은 2020년 말 325%에서 2021년 말 348%로 대폭 증가하였음
 - 60일 이상 연체된 미회수 보험료는 위험기반자기자본(RBC) 제도에 따라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 2021년 1월부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지급여력 강화 차원에서 후순위채 형식으로 보험자본채권(Insurance Capital Bonds)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음

5) 소비자보호 규제

- 태국 보험감독위원회는 모든 보험 계약에 보험금 중재 관련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험회사에 요구하고 있음
- 태국 내 보험 ombudsman은 존재하지 않지만,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 시 태국 보험감독위원회는 2008년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며, 비록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대

¹⁾ 자본적정성비율이란 총 기용 자본(Total Available Capital)을 총 위험 자본 요구량(Total Risk Capital Requirement)으로 나눈 값임

체로 보험회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고 있음

-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중재 절차는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해결됨

○ 태국손해보험협회(Thai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TGI)는 보험회사 간,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별도의 중재사무소를 운영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분쟁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중재사무소 내 중재인은 4명의 은퇴한 법원 판사로 구성되며 다루는 사건의 대부분은 자동차보험 관련임

○ 2021년 10월 Regulation on receiving and considering complaints, B.E. 2564(2021)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태국 보험감독위원회로부터 관련 민원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응해야 함

- 사건별로 7일까지 추가로 연장될 수 있음

○ 2015년 개정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청산 과정에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 청산 시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이에 더해, 감사 결과는 3일간 연속하여 3개 이상의 국내 보급신문에 고시됨

6)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 외국 법인은 공공 유한 보험회사 또는 지점 형태로 태국 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나, 모든 외국 회사의 태국 보험시장으로의 진출은 현지 보험회사에 대한 지분 매입 방식으로 실현되었음

○ 2015년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 법인은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승인 요건 없이 태국 보험회사의 지분을 25%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태국인 개인이 태국 보험회사의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과반수 보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제거되었음

- 비태국인 주주의 정의는 Foreign Business Act, B.E. 2542(1999)에 명시되어 있는 외국인의 정의를 따름
- 태국 보험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는 외국인 주주·외국 법인은 ① 보험회사이거나 보험 관련 금융회사여야 하며, ②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③ 적절한 보험 전문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④ 국제 표준에 맞는 운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⑤ 투자 대상 보험회사의 발전 및 개선을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함

○ 태국 보험회사의 소유권은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최대 49%까지 허용되며,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추천과 태국 재무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 49%이상도 허용됨

- 49% 이상 허용을 받기 위해서는 ① 보험소비자 또는 대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보험회사의 지위 및 운영을 개선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또는 ② 보험회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또는 ③ 태국 보험산업 전체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추가로, 태국 보험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최소 요구 자본적정성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며,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최소 40억 바트,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최소 10억 바트의 주식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사업 전략, 리스크 및 자본 관리, 기술이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3개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49% 이상의 지분 보유가 승인된 외국인인 5% 이상의 외국인 지분 변동이 있거나, 승인된 외국인 주주가 다른 외국인 주주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태국 재무부의 허가 없이 태국에서 다른 보험사업을 할 수 없음
 - 배당금 지급은 제출한 사업 계획서대로 진행해야 함

7) 보험회사 투자 규제

- 1992년 개정된 보험업법에 명시된 법정 보유 한도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는 한 보험리스크에 대해 총 자본의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음
 - 대체로 보험회사들은 양호한 등급의 보험리스크에 대해 허용된 최대 보유량을 유지하지만, 다른 보험회사를 위해 규모를 축소하기도 함
- 위험기반자기자본(RBC) 제도하에서 보험회사는 투자 위험을 개별 보험회사의 자본 강도와 최소한 일치시켜야 하며, 투자 포트폴리오 내 최대 40%까지 위험 자산에 가중치를 둘 수 있음
 - 위험기반자기자본(RBC) 제도의 목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최소 요구 자본적정성비율을 맞추게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정성비율이 준수되는 한 더 높은 자본 수준을 가진 기업이 더 자유롭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위험기반자기자본 평가 요구 사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시장위험자본금(Market Risk Capital Charge; MRCC)을 부채 이상으로 보유해야 함
 - 시장위험자본금은 각 증권 가치에 적절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값으로 계산됨
-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환매 계약 방식으로 증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으며, 태국 은행(Bank of Thailand; BOT)의 승인을 받은 당사자와 무제한적으로 증권을 차입하거나 대출할 수 있음
- 2019년 생명 및 손해보험 투자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투자 범위는 사모펀드, 부동산, 유추일 펀드 및 인프라 투자신탁까지 확대되었으며, 보험회사가 양로

원, 장기요양사업, 인수어테크 보험회사의 주식 또한 보유할 수 있게 되었음

- 추가 개정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투자 범위가 해외 벤처캐피탈, 신디케이트 론까지 더욱 확대되었음
 - 규제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보험회사 이사회가 신용 활동에 참여할 때 신용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추가되었음

8) 의무보험

- 2019년 4월 Immigration Act, B.E. 2522(1979)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장기체류 비자(비이민 비자 O-A)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50세 이상의 외국인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함
 - 2021년 10월 19일 개정 이후, 최소 보장 담보는 기존 40만 바트(입원 환자 대상), 4만 바트(외래 환자 대상)에서 10만 달러 또는 300만 바트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치료가 추가로 의무화됨
 -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 한해, 국가 차원에서 300만 바트의 재정적 보증이 제공됨
- 2023년 1월부터 음성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국가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의료 및 검역 비용에 관한 여행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이외에도 태국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은 손해보험 위주로 다수 존재함

〈표 I-5〉 태국 주요 의무보험

종류	관련 법률 및 내용
자동차 제3자 상해보험	• Protection for Motor Vehicle Accident Victims Act, B.E. 2535(1992)
국가 근로자 재해보험 제도	• Workmen's Compensation Act, B.E. 2537(1994)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근로자 재해보험 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
고층 및 대형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제3자 상책임보험	• Building Control Act, B.E. 2522(1979) : 80실 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고층 및 대형 건물에 적용되며, 건설·개조·증축·철거 중인 건물에도 적용됨
케이블카 운영자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	• Ministerial Regulations on Controlling Electric Cable Cars, B.E. 2564(2021) : 사망·의료비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 관련 내용 외에도, 케이블카의 건설,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요구 사항 또한 명시되어 있음

〈표 I-5〉 계속

종류	관련 법률 및 내용
연료 및 가스 시설 운영자에 대한 화재 및 폭발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nisterial Regulation on Prescription of Rules, Procedures and Conditions pertaining to notification, permission and fees for conduct of fuel oil operations, B.E. 2556 (2013); Fuel Oils Control Act(No 2), B.E. 2550(2007) : 관리 사업 유형 3에 해당하는 시설은 운영하는 자는 운영 과정에서 초래되는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위험 물질 운송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Notification of Ministry of Industry Re: Insurance for Hazardous Waste Transportation, B.E. 2549(2006) : 위험 물질 운송업자는 제3자 신체상해, 제3자 재산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해양 기름 오염에 대한 선주의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2000 : 모든 선주는 기름 오염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2,000톤 이상의 기름을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기름 유출에 대한 최대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을 유지해야 함
제트 스키 손상에 대한 재물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국 정부의 규정에 따름
2kg 이상의 무인항공기(드론)에 대한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Rules to Apply for Permission and Conditions to Control and Launch Unmanned Aircraft in the Category of Remotely Piloted Aircraft, B.E. 2558(2015) : 무게가 25kg 이상인 경우, 반드시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에 등록해야 함
항공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ai Department of Civil Aviation(DCA)의 규정에 따름

자료: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2. 보험시장 현황

가. 보험시장 구조

○ Swiss Re에 따르면 태국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27위이며, 생명보험이 전체 원수보험료의 69%, 손해보험이 31%를 차지하는 생명보험 중심의 시장임

- 1969년 태국의 보험시장이 개방된 이후, 생명보험 원수보험료는 78백만 바트에서 2022년 기준 611,106백만 바트로 연평균 18.4% 성장했고,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는 458백만 바트에서 2022년 기준 274,216백만 바트로 연평균 12.8% 성장하였음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1년 태국의 생명보험시장은 2020년 대비 2.3% 성장했고, 2021년 태국의 손해보험시장은 2020년 대비 5.2% 성장함
 - 태국 보험회사는 소비자들이 최소 100~500바트를 납입하면, 코로나19 감염 시 최대 10만 바트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이 시기에 보험가입자 수가 급증하였음
- 글로벌데이터의 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태국은 자동차 판매 회복, 정부의 인프라 사업 확대, 자연재해 보험수요 증가로 인해 2025년에는 보험료 성장률이 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표 I-6〉 태국 보험산업 원수보험료 규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바트,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원수보험료	생명보험	627,387	610,558	599,810	613,845	611,106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		6.2	5.2	3.5	4.0	4.3
실질 GDP 성장률(%)		4.2	2.2	-6.1	1.5	2.6

자료: TGIA(<https://www.tgia.org/Non-LifeStatistics-EN>)

- 2022년 기준 태국의 생명보험시장의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는 각각 3.5%, 8,749바트인 반면, 손해보험시장의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는 각각 1.6%, 3,926바트로 생명보험시장에 비해 낮은 편임

〈표 I-7〉 연도별 태국 보험시장의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¹⁾

(단위: %, 바트)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생명보험	보험침투도	3.8	3.6	3.8	3.8	3.5
	보험밀도	9,078	8,814	8,629	8,809	8,749
손해보험	보험침투도	1.4	1.4	1.6	1.6	1.6
	보험밀도	3,357	3,521	3,634	3,771	3,926

주: 1)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 Rate)와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각각 수입보험료/명목GDP, 수입보험료/인구수로 정의됨

자료: TGIA(<https://www.tgia.org/Non-LifeStatistics-EN>)

- 태국의 보험침투도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지만, 2014년 규제 당국이 설정한 목표인 6%보다는 낮은 수준임
 - 아세안 국가 총보험료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싱가포르가 34.3%로 가장 높고, 태국 21.4%, 말레이시아 15.3%, 인도네시아 15.1%, 베트남 7.2%, 필리핀 6.2% 순임

〈표 I-8〉 아시아 주요국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0년 기준)

(단위: %, USD)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건강보험 ¹⁾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태국	3.08	217.90	1.31	92.44	1.04	73.78
라오스 ²⁾	0.05	1.31	0.55	14.20	-	-
말레이시아	2.77	314.11	1.05	118.95	0.13	14.58
필리핀 ²⁾	1.60	56.72	0.49	17.26	0.27	9.43
싱가포르	8.79	5,871.85	0.72	480.56	1.06	704.95

주: 1) 생명보험의 특약으로 제공되는 상해·건강 보장은 생명보험으로 분류됨

2) 라오스와 필리핀의 수치는 예측치임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태국 내 모든 보험 계약의 공식 언어는 태국어이며, 영어 번역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만, 보험료를 바트로 책정하기 위해 보험 약관에 합의된 환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음

나. 생명보험시장 현황

- 2021년 기준 태국 생명보험시장 원수보험료는 613,845백만 바트이며, 전년 대비 2.3% 증가함
 - 태국 생명보험시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0.6%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2022년 기준 생명보험시장 원수보험료는 611,106백만 바트로 0.5% 감소함
 - 2021년 기준 생명보험회사 총자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4,162,700백만 바트였으며, 생명보험회사는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영업손실을 경험하고 있음

〈표 I-9〉 태국 생명보험 원수보험료, 총자산, 영업이익의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바트,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원수보험료	금액	600,303	627,387	610,558	599,810	613,845
	증가율	5.6	4.5	-2.7	-1.8	2.3
총자산	금액	3,181,556	3,413,867	3,875,800	4,102,841	4,162,700
	증가율	9.9	7.3	13.5	5.9	1.5
영업이익	금액	-18,050	-16,694	-34,962	-32,510	-29,968

자료: TIBA(2022), "TGIA Market Update"; AXCO(2023), "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은 일반보험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최근에는 변액보험 상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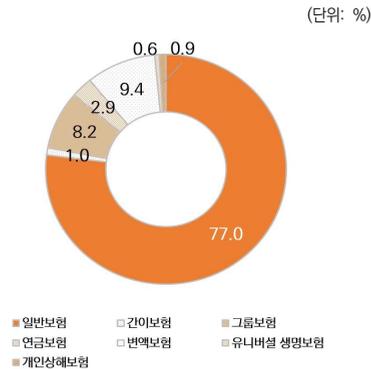
- 2021년 원수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상품별 점유율은 일반보험이 77.0%로 가장 높았으며, 변액보험(9.4%), 그룹보험(8.2%), 연금보험(2.9%), 간이보험(1.0%) 순이었음
 - 변액보험(Unit-Linked)은 보험상품 출시 당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최근 몇 년간 저금리 지속에 따른 종신보험 상품의 매력도 감소로 변액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간이보험(Industrial)은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이며, 소액보험 상품임

〈표 I-10〉 생명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구분	2020	2021	증가율
일반보험	394,000	378,887	-3.8
간이보험	5,410	4,946	-8.6
그룹보험	40,702	40,092	-1.5
연금보험	13,770	14,235	3.4
변액보험	25,255	46,059	82.4
유니버설생명보험	2,083	3,108	49.2
개인상해보험	4,891	4,567	-6.6
합계	486,111	491,894	1.2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그림 I-1〉 원수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상품별 점유율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 생명보험 특약별 원수보험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원수보험료는 93,165백만 바트로, 70%대의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함
 - 2021년 기준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04백만 바트로 전체 원수보험료의 16.49%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원수보험료는 8,650백만 바트로 전체 원수보험료의 7.10% 비중을 차지함
 -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은 각각 전년 대비 20.54%, 8.86% 증가한 반면, 기타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4.38% 감소함

〈표 I-11〉 생명보험 특약별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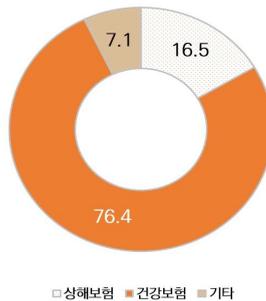
(단위: 백만 바트, %)

구분	2020	2021	증가율
상해보험	16,679	20,104	20.5
건강보험	85,580	93,165	8.9
기타	11,439	8,650	-24.4
합계	113,698	121,919	7.2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그림 I-2〉 생명보험 특약별 구성비

(단위: %)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 태국 생명보험시장에는 2022년 기준 2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존재하며, 2021년 원수보험료를 기준 AIA가 전체 시장의 25.6%를 장악하고 있음
 - FWD Life Insurance는 FWD Life Insurance와 SCB Life Insurance가 합병한 생명보험회사이며, 13.2%(3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시장점유율 10위인 Southeast Life Insurance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0.5% 증가한 반면, 일부 보험회사(Thai Life Insurance, Muang Thai Life Assurance, Krungthai AXA Life)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표 I-12〉 태국 생명보험업 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바트, %)

순위	회사명	2020		2021		성장률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1	AIA	145,845.91	24.3	157,446.31	25.6	8.0
2	Thai Life Insurance	91,292.38	15.2	90,564.11	14.8	-0.8
3	FWD Life Insurance	80,348.04	13.4	81,055.55	13.2	0.9
4	Muang Thai Life Assurance	75,327.29	12.6	72,976.73	11.9	-3.1
5	Krungthai AXA Life	54,651.00	9.1	50,021.09	8.2	-8.5
6	Bangkok Life Assurance	34,744.64	5.8	35,761.73	5.8	2.9
7	Allianz Ayudhya Assurance	31,452.10	5.2	32,068.44	5.2	2.0
8	Prudential Life Assurance	24,312.45	4.1	26,806.39	4.4	10.3
9	Ocean Life Insurance	14,619.93	2.4	14,711.75	2.4	0.6
10	Southeast Life Insurance	8,344.79	1.4	10,890.94	1.8	30.5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 판매채널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보험설계사, 방카슈랑스, 보험중개인 순으로 높음

- 원수보험료 비중은 보험설계사, 방카슈랑스가 각각 52.4%, 39.6%인 반면, 보험중개인, 텔레마케팅의 비중은 각각 3.8%, 2.3%임
 - 태국 보험회사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거나 법인보험중개인과 제휴를 맺어 온라인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보험중개인과 이메일 채널 성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3.9%, 10.5% 감소한 반면, 보험설계사,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기타 채널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2.4%, 6.5%, 1.5%, 13.4% 증가하였음

〈표 I-13〉 태국 생명보험업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천 바트, %)

구분	2020	2021	성장률
	원수보험료	원수보험료	
보험중개인	24,726,492	23,755,906	-3.9
보험설계사	316,415,096	324,033,191	2.4
방카슈랑스	230,302,923	245,194,756	6.5

〈표 I-13〉 계속

(단위: 천 바트, %)

구분	2020	2021	성장률
	원수보험료	원수보험료	
이메일	44,837	40,139	-10.5
텔레마케팅	14,283,187	14,500,793	1.5
기타	9,681,146	10,975,412	13.4
합계	595,453,681	618,500,197	3.9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채권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1년 자산운용 구성비는 채권(79.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식(8.8%), 투자 신탁(5.9%), 대출(5.1%), 자산(0.7%) 순임
- 2021년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 구성비는 2017년과 비교하여,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

〈표 I-14〉 태국 생명보험업 자산운용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바트,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	금액	1,967,236	2,044,487	2,271,230	2,271,447	2,372,144
	구성비	79.7	79.7	79.3	79.3	79.5
주식	금액	250,456	224,876	261,836	261,836	261,297
	구성비	10.1	8.8	9.1	9.1	8.8
투자 신탁	금액	110,294	141,042	173,422	173,422	175,308
	구성비	4.5	5.5	6.1	6.1	5.9
대출	금액	121,042	133,605	139,136	139,134	151,204
	구성비	4.9	5.2	4.9	4.9	5.1
자산	금액	20,271	20,170	19,922	19,922	22,055
	구성비	0.8	0.8	0.7	0.7	0.7
합계		2,469,301	2,564,182	2,865,549	2,865,763	2,982,010

자료: AXCO(2023), "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다. 손해보험시장 현황

○ 태국 손해보험시장은 생명보험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으나, 2021년 기준 원수보험료는 약 262,795백만 바트로 전년 대비 4.0% 증가함

- 태국 손해보험시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4.6%의 성장을 하였으며, 2022년에는 4.35% (274,216백만 바트) 성장함
- 2021년 기준 손해보험회사 총자산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505,826백만 바트였으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27백만 바트로 적자를 기록함

〈표 I-15〉 태국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총자산, 영업이익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바트,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원수보험료	금액	218,434	231,990	244,055	252,618	262,795
	증가율	4.1	6.2	5.2	3.5	4.0
총자산	금액	457,897	468,240	469,179	483,301	505,826
	증가율	-1.5	2.3	0.2	3.0	4.7
영업이익	금액	13,245	9,369	11,914	13,653	-1,027

자료: TIBA(2022), "TGIA Market Update"; AXCO(2023), "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 2020년 태국 보험감독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 판매를 승인한 이후, 20여 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했으며, 이로부터 손해보험업은 막대한 손실을 경험함

-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4,000만여 개의 상품을 판매했으며, 코로나19 진단에 대한 최대 보장액은 20만 바트였음
- 태국손해보험협회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통틀어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으로 인한 시장 손실은 대략 1,000억 바트 정도였음
- 미지급 청구액으로 인해 2021년 12월에는 The One Insurance가, 2022년 4월에는 Southeast Insurance와 Thai Insurance가 면허 취소되었음
 - 2021년 원수보험료 기준 Southeast Insurance는 손해보험시장에서 6위를 차지하는 대규모 손해보험회사였음
- 2022년 5월에는 Syn Mun Kong Insurance는 상당한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보험금 청구로 인하여 파산·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2021년 원수보험료 기준 Syn Mun Kong Insurance는 손해보험시장에서 7위를 차지하는 대규모 손해보험회사였음
- 회사의 부채는 200만여 건의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에서 대략 420억 바트 정도였음

○ 태국 손해보험시장 상품별 점유율에서 자동차보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원수보험료 기준 손해보험 상품별 비중은 자동차보험이 56.1%로 가장 높았고, 기타특종보험(37.6%), 화재보험(3.9%), 해상보험(2.4%)이 뒤를 이었음
- 2021년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6,318백만 바트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으며, 손해보험 상품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자동차보험 내 의무보험 원수보험료는 18,634백만 바트(12.6%), 임의보험 원수보험료는 128,772백만 바트(87.4%)였음

〈표 I-16〉 태국 손해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바트, %)

구분	2020	2021	증가율
화재보험	10,167	10,355	1.8
해상보험	5,290	6,318	19.4
자동차보험	146,017	147,407	1.0
기타특종보험	91,145	98,669	8.3
합계	252,618	262,746	4.0

자료: TGIA(<https://www.tgia.org/Non-LifeStatistics-EN>)를 기초로 작성함

〈그림 I-3〉 원수보험료 기준 손해보험 상품별 점유율

(단위: %)



자료: TGIA(<https://www.tgia.org/Non-LifeStatistics-EN>)를 기초로 작성함

○ 기타특종보험 상품별 손해보험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개인상해보험이 3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기타특종보험의 경우 산업재산종합보험 29.5%, 건강보험 19.0%, 기타 15.5% 순으로 판매됨
- 여행보험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31.4%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자유보험은 전년 대비 1.6% 감소함

〈표 I-17〉 태국 기타특종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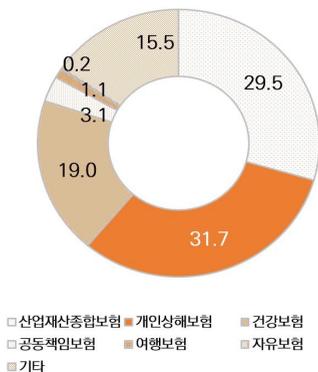
(단위: 백만 바트, %)

구분	2020	2021	증가율
산업재산종합보험	26,676	29,084	9.0
개인상해보험	30,954	31,234	0.9
건강보험	15,632	18,738	19.9
공동책임보험	2,793	3,021	8.2
여행보험	860	1,130	31.4
자유보험	159	157	-1.6
기타	14,071	15,305	8.8
합계	91,145	98,669	8.3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그림 I-4〉 원수보험료 기준 기타특종보험 상품별 점유율

(단위: %)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 태국 손해보험시장에는 2022년 기준 53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존재하며, 2021년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Viriyah Insurance가 전체 시장의 14.6%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50억 바트 이상 자산을 가진 대형 보험회사는 17개 사이고, 10억 바트 이상 50억 바트 미만의 자산을 가진 중·소형 보험회사는 36개 사임
- 태국 손해보험시장은 Viriyah Insurance, Dhipaya Insurance, Bangkok Insurance가 주도하고 있으며, 2021년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CR3는 34.1%로 나타남
 - Tokio Marine Safety Insurance는 Tokio Marine Insurance와 Safety Insurance가 합병한 손해 보험회사로, 6.8%(4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I-18〉 태국 손해보험업 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바트, %)

순위	회사명	2020		2021		성장률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1	Viriyah Insurance	38,154.70	15.1	38,766.60	14.6	1.6
2	Dhipaya Insurance	25,205.57	10.0	28,996.95	10.9	15.0
3	Bangkok Insurance	21,546.50	8.5	22,952.52	8.6	6.5
4	Tokio Marine Safety Insurance	17,454.86	6.9	17,946.77	6.8	2.8
5	Muang Thai Insurance	14,776.39	5.8	15,829.61	6.0	7.1
6	Southeast Insurance	10,495.87	4.2	11,730.76	4.4	11.8
7	Syn Mun Kong Insurance	9,714.70	3.8	10,170.69	3.8	4.7
8	Chubb Samaggi Insurance	10,151.24	4.0	9,820.11	3.7	-3.3
9	LMG Insurance	8,114.02	3.2	8,565.34	3.2	5.6
10	Thanachart Insurance	8,421.97	3.3	8,334.07	3.1	-1.0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 손해보험시장 내 주요 판매채널은 보험중개인 채널이며 방카슈랑스, 보험회사 방문이 뒤를 잇고 있음

- 2021년 원수보험료 기준 손해보험시장 내 판매채널 비중은 보험중개인, 방카슈랑스, 보험회사 방문이 각각 72.1%, 10.3%, 8.1%를 차지하였음
 - 보험중개인 채널은 보험중개인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해당하며, 보험중개인 채널의 비중은 2020년 59%에서 2021년 72%로 급증하였음
- 태국 내 기업 보험중개인은 500여 명, 개인 보험중개인은 10만여 명, 보험설계사는 21,000여 명임

- 보험중개인의 수수료는 화재 및 위험보험이 23%로 가장 높고, 선박적하보험 13%, 의무보험 12%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18%임

〈표 I-19〉 태국 손해보험업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천 바트, %)

구분	2020	2021	성장률
	원수보험료	원수보험료	
보험중개인	151,118,615	183,386,889	21.4
보험회사 방문	13,619,090	20,498,377	50.5
보험설계사	34,304,063	16,757,383	-51.2
방카슈랑스	29,121,915	26,227,434	-9.9
이메일	0	300	-
텔레마케팅	8,941,716	1,278,580	-85.7
직장단체	15,056,997	4,585,954	-69.5
인터넷	1,011,653	682,900	-32.5
기타	0	850,781	-
합계	253,174,049	254,268,599	0.4

자료: Baker McKenzie(2022), "Insurance Outlook 2021~2022"

II

말레이시아

1.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가.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변천

- 말레이시아의 보험법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이 법안 발의안 초안을 내각에 전달하여 상·하원 의회에서 통과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국왕의 승인을 받아 채택됨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법무부(Attorney-general's office)에 법안 발의안 초안 작성을 의뢰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음
 - 내각에서 승인된 보험법안은 상원(Dewan Negara) 및 하원(Dewan Rakyat)으로 구성된 의회가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함
 - 하원에서 1차 독회(First Reading, 법안 소개), 2차 독회(Second Reading, 토의 및 입법 절차 진행 여부 표결), 3차 독회(Third Reading, 표결 승인)를 거치고 상원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음
 -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최종적으로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제66조 4항에 의거하여 국왕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정식 법으로 채택됨
 - 국왕은 30일 이내에 제출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정해진 시일 내에 국왕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시 법으로 채택되며, 해당 법은 정부 간행물에 출간되어 공포되기 이전에는 효력을 지니지 않음
- 말레이시아에서는 1966년 일반 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법과 1984년 이슬람 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타카ful(Takafu)법이 시행되었으며, 1990년부터 역외 금융센터 라부안(Labuan)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 도입되었음
 - 2013년 보험법(Insurance Act)은 금융서비스법으로, 타카ful법(Takafu Act)은 이슬람금융서비스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법률을 근거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금융기관을 감독할 권한을 지님
 - 역외 보험법(Offshore Insurance Act)은 2010년 라부안 금융서비스 및 증권법의 보험 부문으로 내용 간소화를 거쳐 통합되었으며 라부안금융서비스감독청(LFSA)이 라부안 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IBFC)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인가 및 규제를 맡고 있음

〈표 II-1〉 말레이시아 주요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 변경

연도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및 규제
1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2년의 근로자 재해 보상법의 후속 개정 법률로, 월 급여가 500링깃 이하(121달러)인 민간 부문 근로자와 임금과 관계없이 모든 육체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됨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라타 소유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라타 소유권법에 따라 아파트, 콘도 등 건물 관리 법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속한 건물의 개별 호실(Unit)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보험료를 해당 법인에 납부해야 함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운송법에 따라 공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주는 제3자의 신체 상해 배상 책임에 대해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이와 더불어 버스과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차량은 승객 상해에 대한 무제한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개인 차량은 아직 의무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음)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부안 금융서비스 및 증권법(FS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 금융기관에 대한 이전의 역외 금융법을 통합하고 간소화한 법률로, 보험법의 경우 1990년 제정된 역외 보험법(Offshore Insurance Act)을 대체함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예금보험공사법(PID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보험 및 타카풀 소비자 예금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고자 기존 손해보험회사에만 적용되었던 보험보증제도(IGSF)를 타카풀 및 보험급여 보호 제도(TIPS)로 대체함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surance (Exemption) (No 2) Order 2012, Insurance (Approved International Marine, Aviation and Transit Insurance Brokers) Regulations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국가 혹은 지역 법률에 따라 라이선스 취득, 등록, 승인을 받았거나 규제 및 감독하에 있는 보험 중개업인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이 제시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 말레이시아 밖에서 말레이시아 고객을 대상으로 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 중개업을 할 수 있음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서비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보험법(Insurance Act) 폐지 이래 이를 대체하는 주요 법률로, (재)보험회사 및 보험중개인 허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 안정성 촉진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해당 법을 근거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금융기관을 감독할 권한을 지니며, BNM은 금융기관에 사업 행동 표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 이슬람금융서비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4년 타카풀법(Takaful Act) 폐지 이래 이를 대체하는 주요 법률로, 타카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법과 동일한 목적을 지님 • 라부안 재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 및 극동 부유층에 라부안 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로, 2010년의 라부안 재단법(LFA)을 개정 한 규정법임 • 라부안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사원 규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의 라부안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사원법에서 개정된 규정법으로, 사원(Partner)의 역할과 의무, 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칙을 설명함 • 라부안 이슬람금융서비스 및 증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의 라부안 이슬람금융서비스 및 증권법에서 개정된 규정법으로 라부안 내 이슬람금융과 관련한 규정 및 지침을 간소화하였음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카풀 사업자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카풀 사업자가 이행하는 내부 자본 적정성 평가 프로세스(CAAP)에 대한 요건을 다루는 법률임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나.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

- 1988년부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인가 및 규제를 맡고 있음
 - 중앙은행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업 지배구조 적합성 및 효율성, 소비자 보호와 연관되며 보험회사는 자율 규제의 형식으로 이를 준수함
 - 보험회사는 중앙은행에 분기별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감사를 받은 연례보고서와 장부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 기관의 동의 없이 배당을 발표할 수 없음
- 라부안 금융서비스 및 증권법(LFSSA)에 따라 라부안금융서비스감독청(LFSA)이 라부안 국제비즈니스 금융센터(IBFC)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인가 및 규제를 맡고 있음

1)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단기 계획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금융 부문 청사진 2022~2026(Financial Sector Blue Print 2022~2026)에 따르면, 보험 부문의 핵심 목표는 보험침투도 제고와 미소보험 계약자 수 확대임¹⁾
 - 중앙은행의 동 청사진은 주요 목표로서 2026년까지 보험 및 타카풀의 보험침투도를 4.8%~5.0% 수준²⁾으로 향상시키고, 미소보험 및 미소타카풀 개인 가입자 수를 약 두 배로 올리려고 함

〈표 II-2〉 말레이시아 금융 부문 청사진 2022~2026 목적별 보험산업 육성방안

주요 목적	활성화 방안
팬데믹 이후 금융 중개 회복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및 타카풀의 무역보험 인수역량을 확대를 위한 무역 신용 보호 보험상품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 등 이머징 리스크 관련 국내 전문인력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관련 상품 활성화 • 재보험과 재타카풀 지원을 통한 국내 보험시장 내 관리 리스크 다각화
가계 및 기업 보호 강화를 통한 재정 회복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대규모 위험(전염병, 홍수 등) 이전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모색 • 소비자 인식 및 이해도 향상, 수요 측면의 데이터 개발을 통해 미소보험 및 미소타카풀시장 지원 • 자동차 보험료 자유화 추진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자동차 보험금 청구 시스템 개선 • 민간 의료 및 건강 보험, 타카풀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성 제고

1) Bank Negara Malaysia(2022), "Financial Sector Blueprint 2022-2026"

2) Swiss Re(2021), "Sigma world insurance in 2021"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보험침투율은 생명보험 3.7%, 손해보험 1.3%임

〈표 II-2〉 계속

주요 목적	활성화 방안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금융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및 타카풀 대리점, 보험중개인 등 판매 중개인의 행위에 대한 기본 규제 요구사항 검토 • 방카슈랑스 및 방카타카풀 정책 프레임워크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 판매대리점 자격 요건 강화 및 재무설계전문가(FP), 재무설계사(FA) 간 단일 라이선스 구축을 통한 행정 효율성 강화 • 보험 및 타카풀 중개인을 위한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강화
디지털 금융서비스 환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개선 및 보험료 완전 자유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 금융 포용, 경쟁,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보험회사 및 디지털 타카풀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무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 홍수 등 물리적 위험에 기인한 경제적 손실 예측을 통한 보험료 인하 • 지수형 보험 활성화를 통한 보험 및 타카풀 보험금 청구 속도 향상 • ASEAN Green Map 구축 지원

자료: Bank Negara Malaysia(2022), "Financial Sector Blueprint 2022-2026"를 기초로 작성함

2) 보험회사의 면허제도와 사업 범위

○ 말레이시아 내 라이선스는 생명보험 라이선스와 손해보험 라이선스 두 가지로 구분되며, 하위 등급의 라이선스는 존재하지 않음

- 보험산업 면허를 보유할 수 있는 법인은 전문 재보험 법인을 제외하고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공개회사여야 하며, 타카풀 사업자의 경우 이슬람법 준수를 위해 법인 내 샤리아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회사법(2016)에 따라 보험회사는 공개 유한회사여야 하며 타카풀 사업자의 경우 협동조합법(1993)에 따라 협동조합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고 상호회사는 허용되지 않음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보험회사의 사업 신청서를 검토하고 재무부 장관에 사업 라이선스 부여 여부에 대해 권고하며, 라부안에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은 라부안금융서비스감독청(LFSA)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주회사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를 모두 소유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중앙은행의 금융기관 주주 적합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 법인은 지분의 5% 이상을 소유해야 함
 - 상장보험회사는 최소 1,000명의 주주가 각각 100주 이상의 주식 및 총 상장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해야 함

○ 수년간 손해보험업에 대한 신규 라이선스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중앙은행은 이슬람금융 허브로서 입지를 강화하고자 타카풀 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교부를 위해 특별 조항을 신설한 바 있음

- 그러나 말레이시아 타카풀 사업자 대부분은 생명보험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근 미래에 일반 손해보험업 타카풀 라이선스를 부여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예측됨

- 개인상해보험 영역은 손해보험에 속하지만, 특약 형태로 생명보험회사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판매에는 생·손보 영역의 구분을 두지 않음

3) 보험회사 최저 자본금과 지급여력제도 규제

- 중앙은행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타카풀 사업자 및 재보험회사의 최저 납입자본금은 1억 링깃(약 2,400만 달러)임
 - 영업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외국 재보험회사는 예외)는 최저 납입자본금인 1억 링깃 이상의 부채에 대해 초과 자산분을 유지해야 함
- 라부안금융서비스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회사의 성격에 따라 요구하는 최저 납입자본금이 상이함

〈표 II-3〉 라부안 내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종류별 최저 납입자본금

보험회사 종류	최저 납입자본금
생명보험 또는 일반 손해보험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첫해에 750만 링깃(약 178만 달러)이나 이에 상응하는 외화 • 이듬해 750만 링깃이나 순 수입보험료의 20% 중 높은 금액
경영 보험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첫해에 천만 링깃(약 242만 달러)이나 이에 상응하는 외화 • 이듬해 750만 링깃이나 순 수입보험료의 20%+생명보험 부채의 보험수리적 평가액 3% 중 높은 금액
재보험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첫해에 천만 링깃(약 242만 달러)이나 이에 상응하는 외화 • 이듬해에는 천만 링깃이나 순 수입보험료의 20%+생명보험 부채의 보험수리적 평가액 3% 중 높은 금액
전속보험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첫해에 30만 링깃(약 7만 달러)이나 이에 상응하는 외화 • 이듬해에는 30만 링깃이나 순 수입보험료의 20%+생명보험 부채의 보험수리적 평가액 3% 중 높은 금액을 납입해야 함
임대캡티브, 셀(Cell) 캡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만 링깃(약 12만 달러)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 위험기반자기자본(RBC) 제도 및 타카풀 사업자를 위한 RBC 제도(RBCT)에 따라 보험회사 및 타카풀 사업자는 최소 요구 자본적정성비율(Capital Adequacy Ratio; CAR) 130%를 충족하여야 함³⁾

³⁾ 자본적정성비율이란 총 가용 자본(Total Available Capital)을 총 위험 자본 요구량(Total Risk Capital Requirement)으로 나눈 값임

- 보험회사는 자체 리스크 프로필 반영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130%보다 더 높은 CAR을 목표로 설정해야 하고, 이를 위한 내부 자본 적정성 평가 프로세스(ICAAP)가 시행되었음
 - 보험회사가 CAR 자체 내부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감독 기준인 130%를 넘겼을 경우, 중앙은행은 규제를 통한 개입 정도를 결정하기 이전에 보험회사의 시정계획을 평가함
 - CAR 13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사업에 제약을 받거나 구조조정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2021년 말레이시아 보험회사 및 타카풀 사업자의 내부 목표 수준은 약 150~250%였으며 총 보험산업 CAR은 221.2%에 달하여 건전한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보여줌⁴⁾

4) 소비자보호 규제

- 금융서비스법 2013 및 이슬람금융서비스법 2013에 따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6년 10월부터 금융서비스 옴부즈만(The Ombudsman for Financial Services; OFS)을 시행함
 - 금융조정국(Financial Mediation Bureau; FMB)의 후신인 OFS는 비영리 단체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으나, OFS에 제기된 분쟁을 중앙은행에서 맡아서 해결하는 것은 아님
 - 소비자는 금융서비스 옴부즈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분쟁 최대 보상금은 25만 링깃(약 6만 달러)이나, 자동차 제3자 재산피해 보상금은 1만 링깃(약 2,400달러)으로 제한되어 있음
 - 소비자는 금융기관에 분쟁사항을 제기한 뒤 금융서비스 옴부즈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분쟁 조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한 번의 추가 조정을 거치나, 그 이후에는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함
 - 2022년 금융서비스 옴부즈만은 총 2,119건의 분쟁 중 1,108건을 해결하였으며 이 중 55%는 상업 및 이슬람 은행 부문의 결제시스템 관련, 45%는 일반 보험 및 타카풀 부문에서 제기된 분쟁이었음⁵⁾
- 이와 더불어 분쟁과 관련한 직접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으나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점을 찾도록 지원하는 말레이시아 중재 센터(Malaysian Mediation Centre)가 존재함
 - Mediation Act 2012에 따라 말레이시아 중재 센터는 변호사 협회의 중재 규칙 및 중재자 행동 강령 규제를 받으며, 대체 분쟁 해결 수단으로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음
- 2023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소비자의 신뢰와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 및 타카풀 대리점 전문성에 관한 정책 문서와 금융 취약 소비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공개 초안을 발표함⁶⁾

4) Insurance Business(2021), "Malaysian insurers' capital reserves adequate, says regulator"

5) The EDGE Malaysia(2023), "Ombudsman for Financial Services resolved 1,108 dispute cases in 2022"

6) Skirine(2023), "Bank Negara issues Policy Document on Professionalism of Insurance and Takaful Agents"; Skirine(2023), "Bank Negara issues Exposure Draft on Fair Treatment of Vulnerable Consumers"

- 보험 및 타카풀 대리점 전문성(Policy Document on Professionalism of Insurance and Takaful Agents) 정책 문서는 2024년 시행 예정임
 - 동 문서는 보험상품 주요 판매 채널인 대리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험회사 내부 거버넌스 구축, 실사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 및 효용 제고와 그 목적임
- 금융 취약 소비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공개 초안(Exposure Draft on Fair Treatment of Vulnerable Consumers)은 파트E의 g절을 제외하고 발표 6개월 경과 후 발표될 예정임
 - 동 공개 초안은 금융기관이 금융 취약 소비자(장애인, 노인, 고액채무자, 자연재해 피해자, 외국인 등)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 당국의 요구사항을 제시함
 - 해당 초안은 2019년 11월 BNM이 발행한 금융 소비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정책 문서(Policy Document on Fair Treatment of Financial Consumers)⁷⁾를 기반으로 함

5)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 외국 법인은 공공 유한 보험회사 또는 지점 형태로 말레이시아 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특히 손해보험 부문에서 외국 법인의 활동이 두드러짐
 -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된 외국인 소유의 보험회사와 타카풀 사업자는 제한 사항 없이 말레이시아 전역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은행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방카슈랑스 및 방카타카풀 영업도 가능함
-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말레이시아 보험회사의 지분 중 최대 70%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100%를 보유할 수 있음
 - 중앙은행은 2017년 외국인 지분이 70%를 상회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2018년 6월까지 국내 주주 지분 비율을 30%로 높이도록 요청하였음
 - 그러나 다수의 보험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지분을 높이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지분 확대 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 중앙은행은 외국 보험회사에 말레이시아 내 자회사 지분 70% 이상을 매각하거나 B40 국민건강보호기금(B40 Health Protection Fund)에 기부하는 선택권을 주었고 대부분 보험회사는 기금 기부를 선택함
 - B40 국민건강보호기금은 4억 86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으로, 약 410만 명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19세부터 55세 사이)으로 5년 동안 의료 보험 및 타카풀을 제공함
 - 싱가포르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Great Eastern이 최소 4억 860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을 약

⁷⁾ 동 정책 문서는 금융 소비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공정한 대우를 촉진할 목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에는 허위 광고, 강매, 불완전판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속하여 자회사 자본 축소 의무에서 면제된 바 있음⁸⁾

- 이와 더불어 말레이시아 일반 보험회사나 타카풀 사업자 주식의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외국 법인은 보험회사와의 협의 이전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 2014년 중앙은행이 발행한 금융기관의 주주 적합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말레이시아 보험회사는 외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고 경영상 정직성과 평판을 확보하기 위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6) 보험회사 투자 규제

- 말레이시아의 RBC 및 RBCT 프레임워크가 보험회사의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규제는 규범적이지 않음
 - 대체로 RBC 산출에 적용되는 시장위험자본금(Market Risk Capital Charge; MRCC)을 백분율로 산출하여 각 위험 자산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요구함
 - 비상장 벤처캐피털 투자의 경우 35%,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나 G10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20%, 자기 소유 부동산의 경우 8%, 현금 예금의 경우 0.8%임
- RBC 및 RBCT 제도하에서 보험회사 및 타카풀 사업자는 특정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존재함

〈표 II-4〉 투자 한도가 존재하는 자산 종류와 한도

자산 종류	투자 한도(%)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5
신용등급이 BBB- ~ BBB+ 미만인 채무 증권	5
무담보 금융	5
국가 신용 등급이 말레이시아와 최소한 동등한 관할권에 있는 해외 자산	10
1989년 은행 및 금융기관법, 1983년 이슬람 은행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개별 거래상대방 자산	20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에 상장한 개별 거래상대방	10
기타 거래상대방	5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⁸⁾ Asia Insurance Review(2019), "Malaysia: Free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launched"

7) 의무보험

○ 2019년부터 모든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말레이시아 사회보장국(PERKESO)에 등록시키고 업무상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함⁹⁾

- 이전까지 육체노동을 하거나 월 급여 500링깃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만이 근로자 재해보상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보상제도에 가입했으나 가사도우미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 됨
 - 동 재해보험의 보험료 부담률은 급여의 약 1.25%로,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며 월 급여가 4,000링깃 이상인 경우 49.4링깃으로 보험료 상한이 존재함

〈표 II-5〉 말레이시아 주요 의무보험

종류	관련 법률, 제도 및 내용
자동차 제3자 상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운송법에 따라 공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주는 제3자의 신체 상해 배상 책임에 대해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이와 더불어 버스와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차량은 승객 상해에 대한 무제한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개인 차량은 아직 의무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음)
근로자 재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배해보상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급여가 500링깃 이하(약 121달러)인 민간 부문 근로자와 임금과 관계없이 모든 육체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됨
전문인(변호사, 보험중개인, 재무설계사 등)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전문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전문직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최소 보장 한도는 변호사: 25만 링깃~2백만 링깃(약 6만~48만 달러), 보험중개인: 1백만 링깃(약 24만 달러), 재무설계사: 20만 링깃(약 5만 달러), 라부안 보험중개인: 250만 링깃(약 60만 달러))
의료과실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규제(Medical Regulations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는 연간진료허가서(Annual Practicing Certificate)를 발급받기 위해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료과실보험)에 가입해야 함
MATTA를 통한 여행에 대한 여행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TA 아웃바운드 여행자 보험 보장 제도(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관광여행사 협회(MATTA) 회원 여행사를 통해 말레이시아를 여행하는 이는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 응급 의료 후송 및 송환, 보증금 환불, 항공권 환불 등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함
외국인 근로자 보증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 권리 규정 21(Regulation 21 of the Immigration Regu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송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이민국의 보증을 받아야 함. 다만 보험 가입 외에도 은행 보증이나 현금 예치금을 통한 보증도 가능함

⁹⁾ 세계법제정보센터(2019), 「말레이시아, 외국인 근로자 업무상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표 II-5〉 계속

종류	관련 법률, 제도 및 내용
유류오염에 대한 선주의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 모든 선주는 소유 선박으로 인한 유류오염 발생에 대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아파트 및 콘도 화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트라타 소유권법 : 아파트, 콘도 등 건물 관리 법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속한 건물개별 호실(Unit)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보험료를 해당 법인에 납부해야 함
외국인 근로자 의료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근로자 입원 및 수술 보험 제도 : 외국인 근로자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지정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입원 및 수술 비용을 보장 하는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연간 보험료는 120링깃임
항공사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몬트리올 협약(MC 99) :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말레이시아 여객운송인은 여객의 상해 및 사망, 수하물 훼손 등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자료: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2. 보험시장 현황

가. 보험시장 구조

○ Swiss Re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규모는 전 세계 31위¹⁰⁾이며 보험침투도는 5.0%, 보험밀도는 592달러임

- 2022년 말레이시아 전체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약 200억 달러로 한국의 약 1/10배이며, 보험시장 규모는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19위), 태국(27위) 다음으로 높음
- 2022년 말레이시아 전체 보험산업의 보험침투도는 5.0%(생명보험업 3.7%, 손해보험업 1.3%)이며 이는 주변국가인 태국(5.3%)과 유사한 수치임
- 2022년 말레이시아 전체 보험산업의 보험밀도는 592달러(생명보험업 432달러, 손해보험업 160달러)이며, 이는 한국의 약 1/6배 수준임

¹⁰⁾ Swiss Re(2023), "sigma 3/2023 - World insurance"

〈표 II-6〉 아시아 주요국 보험산업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2년)

구분	시장규모(백만 달러)	보험침투도(%)	보험밀도(달러)
한국	182,846	11.1	3,541
싱가포르	46,984	9.2	7,563
태국	25,227	5.3	369
말레이시아	20,115	5.0	592
베트남	11,286	2.3	95

주: 시장규모는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Swiss Re(2023), "sigma 3/2023 - World insurance"

○ 말레이시아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보험업은 전통형 보험과 이슬람 율법에 기반하는 타카풀로 구성됨

-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의 61.3%¹¹⁾가 무슬림으로 이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기반하여 상부상조와 각출로 운영되는 이슬람보험인 타카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¹²⁾
 - 1980년대 샤리아 율법을 따르는 보험인 타카풀에 대한 니즈가 커지자 1984년 말레이시아에 타카풀 법이 도입되었고 동일 해에 타카풀 사업자가 최초로 설립됨
- 타카풀은 생명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가족타카풀(Family Takaful)과 손해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일반타카풀(General Takaful)로 나뉨
 -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타카풀 보유국가임¹³⁾
- 생명보험업은 따라서 전통형 생명보험과 가족타카풀로 구성되며, 손해보험업은 전통형 손해보험과 일반 타카풀로 구성됨

○ 말레이시아는 생명보험업 중심의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타카풀은 전체 보험산업의 약 1/4를 차지함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생명보험업이 745억 링깃(약 158억 달러) 손해보험업이 240억 링깃(약 51억 달러)을 기록하며, 생명보험업이 전체 보험산업의 약 3/4을 차지하고 손해보험업이 나머지 1/4을 차지함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전통형 보험이 755억 링깃(약 160억 달러), 타카풀 산업이 230억 링깃(약 49억 달러)을 기록하며, 전통형 보험이 전체 보험산업의 약 3/4을 차지하고 타카풀이 나머지 1/4을 차지함

11) The World Factbook(CIA), 최종수정일 2023. 9. 7

12)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투기, 불확실성, 이자 등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슬람교도는 전통형 보험 대신 타카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13) E&Y(2013), "Global Takaful Insights 2013", p. 7

〈표 II-7〉 말레이시아 전체 보험산업 권역별 원수보험료(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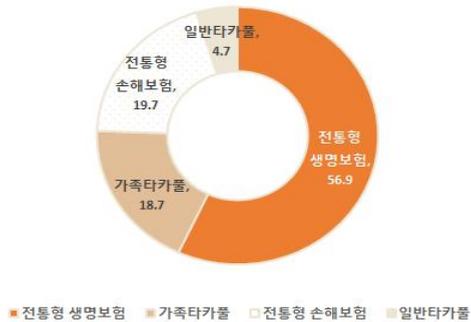
구분		원수보험료(십억 링깃)
생명보험업	전통형 생명보험	56.1
	가족타카풀	18.4
생명보험업 합계		74.5
손해보험업	전통형 손해보험	19.4
	일반타카풀	4.6
손해보험업 합계		24.0

주: 타카풀에서는 보험료의 개념으로 각출금(Contribu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본고는 타카풀 총각출금(Gross written contributions)을 보고서 작성의 편의를 위해 원수보험료로 표현함

자료: Malaysian Takaful Association(2022), "Annual Report 2022"

〈그림 II-1〉 말레이시아 전체 보험산업 권역별 원수보험료 비중(2022년)

(단위: %)



자료: Malaysian Takaful Association(2022), "Annual Report 2022"

○ 말레이시아 보험산업은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 OECD에 따르면 2021년 말레이시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에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70%, 55%로 말레이시아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 외국계 보험회사 외 주요 현지 보험회사로는 Hong Leong Assurance와 Etiqa Insurance가 있으며 두 보험회사 모두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금융기업의 자회사임
 - Hong Leong Assurance는 대기업인 Hong Leong Group이 소유하고 있고 Etiqa Insurance는 말레이시아 금융서비스 그룹인 Malayan Banking(Maybank)의 자회사임

〈표 II-8〉 말레이시아 내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2017	2018	2190	2020	2021
전체	생명보험업	72	70	73	72	70
	손해보험업	52	53	53	53	55

주: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말레이시아 역내 보험업에서 외국계 기업의 관리하에 있거나 외국계 보험지점·대리점이 인수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OECD Insurance Statistics

- 외국계 보험회사 및 타카풀 사업자에 적용되는 외국계 기업의 자본 보유 한도는 70%임
 - 말레이시아 내 외국계 보험회사(혹은 타카풀 사업자)에 적용되는 자본 보유 한도는 기존에 49%였으나 2009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의 시장자유화 조치로 70%로 확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보험회사는 말레이시아 재무부 재량으로 70%를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실제로 주요 외국계 보험회사 자본 소유는 100%인 경우가 많음

- 말레이시아 보험업의 상당 부분은 역외지역인 국제금융센터 라부안(Labuan) 지역에서 인수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라부안 지역에서는 고액자산가(말레이시아인과 재외국민)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 해당 지역에서는 외국통화로 보험인수가 가능함
 - 라부안 지역에서 보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금융서비스 기업인 영국령 맨섬 소재의 Hansard Global, RL360 Insurance 혹은 Manulife는 라부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
 - Manulife는 1963년 말레이시아에 진출하였고 2017년 라부안 지역에 지점을 설립함
 - 라부안 지역에서는 외국인 자본 보유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라부안 지역 내의 감독당국(The 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소보험과 미소타카풀(Microtakaful) 보험계약자 수를 확대하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Financial Sector Blueprint 2022-2026을 발표하며 미소보험과 미소타카풀 보험계약자 수를 현재 대비 두 배로 확대하고자 함
 -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업 관련 대표적인 사회보장 정책으로는 'Perlindungan Tenang'을 꼽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를 사용하여 전통형 보험 및 타카풀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 Perlindungan Tenang는 2021년 바우처당 50링깃(약 10달러)을 제공했으나 2022년 75링깃(약 15달러)으로 확대되었고, 높은 소비자 호응도를 보이고 있음

- 소비자는 월 2.09링깃(약 0.5달러)으로 보험가입금액이 10,000링깃(약 2,120달러) 이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나. 생명보험시장 현황

○ 말레이시아 생명보험시장은 크게 전통형 생명보험시장과 가족타카풀시장으로 구분됨

1) 전통형 생명보험시장

-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시장 원수보험료는 569억 링깃(약 121억 달러)이고 시장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실질GDP와 가족타카풀의 성장률 대비 낮음
 - 전통형 생명보험시장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5.7%로, 같은 기간 실질GDP 성장률(8.4%)이나 가족타카풀 성장률(16.2%) 대비 낮은 수치임
 - 가족타카풀의 성장세가 높기 때문에 전통형 생명보험의 성장률은 다소 낮은 상황임
 - 2021년 기준 전통형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은 2,800억 링깃(약 595억 달러)이었으며 영업이익은 63억 링깃(약 13억 달러)을 기록함

〈표 II-9〉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 원수보험료, 총자산, 영업이익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링깃,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원수보험료	금액	44.7	48.7	50.7	55.5	56.1
	성장률(%)	5.0	9.0	4.1	9.3	1.2
총자산	금액	235.1	254.8	274.0	280.7	-
	성장률(%)	2.7	8.4	7.6	2.4	-
영업이익	금액	3.4	3.6	4.8	6.3	-
실질GDP 성장률(%)		4.8	4.4	-5.5	3.1	8.7

자료: Malaysian Takaful Association(2022), "Annual Report 2022";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세계은행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은 변액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최근에는 단체보험의 증가율이 높음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전통형 생명보험 상품별 점유율은 변액보험이 59.3%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전통보험(32.0%), 단체보험(8.7%) 순임

- 말레이시아의 저금리 환경이 오랜기간 유지되며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상품의 선호도가 높음
- 2022년 단체보험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해 높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이 밖에도 연금보험이 전통형 생명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에 가까움
 - 이는 말레이시아 EPF(Employee's Provident Fund) 제도가 사적연금 시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거나, 2001년 연금상품의 불완전판매 이슈로 해당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요인 등이 있음¹⁴⁾

〈표 II-10〉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링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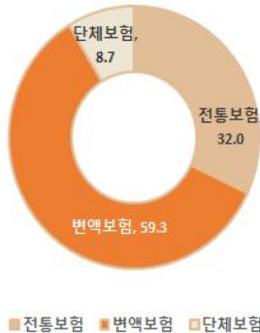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전통보험	18,273	17,938	-1.8
변액보험	32,815	33,309	1.5
단체보험	4,362	4,877	11.8
합계	55,450	56,124	1.2

주: 전통보험은 종신보험, 생사혼합보험, 정기보험 등의 합을 의미함

자료: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Malaysia(2022), "Annual Report 2022"

〈그림 II-2〉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2022년)

(단위: %)



자료: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Malaysia(2022), "Annual Report 2022"

14) 말레이시아에서 EPF 가입자를 위한 사적연금 상품은 2001년 불완전판매 등의 이슈로 판매가 중단된 바 있으며 이후 해당 상품의 판매 실적은 저조함: Asmuni, Shahrudin and Redzwan(2020), "Value for Money of Retirement Insurance Plans in Malaysia with Consideration of Longevity Factor"; Asmuni & Purcal(2018), "On the study of Malaysia's private annuity"

○ 전통형 생명보험시장에는 14개 회사가 존재하며, 주요 보험회사는 AIA, Great Eastern Life Assurance, Prudential Assurance와 같은 외국계 기업임

- AIA, Great Eastern, Prudential은 모두 외국계 보험회사로 2021년 원수보험료 기준 이들 3개 보험회사는 전통형 생명보험시장을 각각 25.8%, 22.3%, 18.3%를 차지함
- 한편 말레이시아 현지 보험회사인 Hong Leong Assurance와 Etiqa Life Insurance 또한 2021년 기준 각각 7.1%와 4.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11〉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링깃, %)

순위	회사명	2020		2021		성장률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1	AIA	11,236.1	27.2	11,214.6	25.8	-0.2
2	Great Eastern Life Assurance	9,297.2	22.5	9,674.5	22.3	4.1
3	Prudential Assurance	7,578.7	18.3	7,963.2	18.3	5.1
4	Allianz Life Insurance	2,800.0	6.8	3,116.7	7.2	11.3
5	Hong Leong Assurance	2,843.5	6.9	3,100.0	7.1	9.0
6	Etiqa Life Insurance	1,737.8	4.2	1,936.4	4.5	11.4
7	Tokio Marine Life Insurance	1,346.0	3.3	1,561.1	3.6	16.0
8	Manulife Insurance	927.5	2.2	1,013.8	2.3	9.3
9	Zurich Life Insurance	832.4	2.0	962.3	2.2	15.6
10	Sunlife Malaysia Assurance	801.7	1.9	865.4	2.0	7.9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전통형 생명보험 부문 판매채널별 비중은 보험설계사와 방카슈랑스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그 밖의 채널 비중은 미미함

- 보험설계사는 말레이시아 보험산업 초기부터 산업발전을 주도해 왔으며 2021년 신계약 원수보험료 기준 전통형 생명보험의 약 2/3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음
 - 보험설계사 중 중국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이며, 이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23%)을 고려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치임
- 방카슈랑스 채널은 1990년대 이후부터 발전되기 시작했고 2021년 신계약 원수보험료 기준 전통형 생명보험의 약 1/3이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주요 전통형 생명보험회사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외국계 보험회사는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현지 보험회사는 은행이 주도하는 금융그룹 내에서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음

- 보험중개인은 2000년 이전까지 손해보험업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채널다변화 정책으로 생명보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21년 기준 여전히 낮은 비중(약 1.7%)을 차지함
- 재무설계사 비중은 현재 미미한 수준이나 전통형 생명보험시장의 판매 방식이 상품 위주에서 소비자 니즈 기반의 금융상담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채널의 비중은 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¹⁵⁾
- 온라인을 통한 전통형 생명보험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며 2021년 신계약 기준 전통형 생명보험상품의 약 0.1% 정도만이 온라인으로 거래됨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7년부터 특정 보장성 생명보험 상품을 수수료 없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의 성과는 미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보험시장의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2022년 디지털보험회사와 애그리게이터(Aggregator)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법을 초안¹⁶⁾을 발표함

〈표 II-12〉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험설계사	65.5	64.2	62.5	62.6	64.0
방카슈랑스	30.7	32.0	33.8	33.5	32.5
보험중개인	1.6	1.9	2.0	2.2	1.7
재무상담사	0.2	0.2	0.3	0.3	0.6
직접판매	0.1	0.1	0.1	0.1	0.1
직접마케팅·기타	1.9	1.6	1.4	1.3	1.1

주: 1) 전통형 생명보험 내 신계약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2) 직접판매는 온라인을 통한 거래를 포함하고, 직접마케팅은 방카슈랑스 파트너십을 통해 은행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는 텔레마케팅 혹은 TV 등을 통한 광고활동을 포함함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발달된 채권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전통형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구성비는 기업증권이나 채무증권과 같은 채권시장 혹은 국채·보증대출과 같은 안전자산에 주로 투자되어 있음
- 이 밖에도 해외자산(6.4%), 현금 및 예금(5.8%), 대출(4.0%) 등으로 자산이 운용됨

¹⁵⁾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발표된 'Financial Sector Blueprint 2022-2026'을 통해 재무설계사와 재무설계전문가에게 별도 부여하던 라이선스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함

¹⁶⁾ Licensing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Digital Insurers and Takaful Operators

〈표 II-13〉 말레이시아 전통형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변화

(단위: 백만 링깃,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업증권·채무증권	금액	155,311.0	154,895.9	170,487.1	181,558.7	178,798.9
	구성비	67.9	65.9	66.9	66.3	63.7
국채·보증대출 (Guaranteed loans)	금액	23,294.7	27,551.7	25,842.0	30,533.4	34,585.7
	구성비	10.2	11.7	10.1	11.1	12.3
해외자산	금액	10,970.2	10,400.5	13,534.5	16,704.9	18,069.7
	구성비	4.8	4.4	5.3	6.1	6.4
현금 및 예금	금액	10,135.8	12,008.9	14,754.1	14,668.0	16,342.7
	구성비	4.4	5.1	5.8	5.4	5.8
대출	금액	12,679.9	12,467.3	12,194.0	11,692.3	11,265.8
	구성비	5.5	5.3	4.8	4.3	4.0
투자부동산	금액	2,392.2	3,175.8	3,149.3	3,104.5	3,119.4
	구성비	1.0	1.4	1.2	1.1	1.1
부동산, 발전소 및 장비	금액	2,149.9	2,081.0	2,187.7	2,330.0	2,193.4
	구성비	0.9	0.9	0.9	0.9	0.8
기타	금액	11,926.2	12,502.4	12,607.0	13,398.0	16,274.4
	구성비	5.2	5.3	4.9	4.9	5.8
합계		228,859.9	235,083.5	254,755.7	273,989.8	280,650.0

자료: AXCO(2023), "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2) 가족타카ful시장

○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 가족타카ful시장 원수보험료는 184억 링깃(약 39억 달러)이고 성장률은 실질GDP와 전통형 생명보험 성장률 대비 높은 특징을 보임

- 가족타카ful시장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16.2%로, 이는 같은 기간 실질GDP 성장률(8.4%)이나 전통형 생명보험 성장률(5.7%) 대비 높은 수치임
 - 타카ful 보험료가 전통형 생명보험 보험료 대비 일반적으로 10~15% 정도 높은 경향이 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가족타카ful은 전통형 생명보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다수의 인구가 무슬림인 국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타카ful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선진적인 이슬람금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민족과 기타 원주민이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무슬림 국가로 이들 민족은 샤리아올법을 따르기 위해 타카ful 상품의 보험료가 다소 높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음

〈표 II-14〉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 원수보험료 성장 추이

(단위: 십억 링깃,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가족타카풀	원수보험료	9.8	11.5	12.7	15.9	18.4
	성장률(%)	12.6	17.7	10.5	25.3	15.6
실질GDP 성장률(%)		4.8	4.4	-5.5	3.1	8.7

자료: Malaysian Takaful Association(2022), "Annual Report 2022"; 세계은행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은 개인일반, 단체일반, 변액(개인·단체) 상품이 비교적 고르게 판매되고 있음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가족타카풀 상품별 비중은 개인일반, 단체일반, 변액(개인·단체) 상품이 각각 39.4%, 33.0%, 27.6%를 차지함
 - 변액상품은 유닛 차감(Unit deductions)을 통해 사망비나 운영비가 추정가능한 투명한 가격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샤리아올법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22년 단체일반 상품은 전년 대비 37.3%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이 밖에도 연금상품은 전통형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족타카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에 가까움

〈표 II-15〉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 상품별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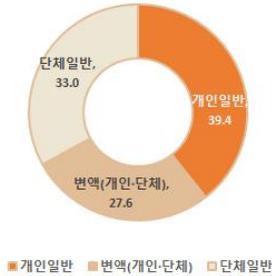
(단위: 백만 링깃, %)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개인일반	6,040	7,248	20.0
단체일반	4,426	6,076	37.3
변액(개인·단체)	5,452	5,078	-6.9
합계	15,919	18,402	15.6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그림 II-3〉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 상품별 보험료 비중(2022년)

(단위: %)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시장에는 11개의 사업자가 존재하며, 주요 사업자는 Prudential BSN Takaful, Etiqa Family Takaful, Syarikat Takaful임

- 2022년 순보험료수입(Net contribution income) 기준 가족타카풀시장의 선두 사업자는 외국계 기업인 Prudential BSN Takaful이며 해당 사업자는 전체 가족타카풀시장의 22.1%를 차지함
- 이 밖에도 현지 타카풀 사업자인 Etiqa Family Takaful과 Syarikat Takaful이 각각 15.6%와 15.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표 II-16〉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 운영사별 순보험료수입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링깃, %)

순위	회사명	2021		2022년		성장률
		순보험료수입	시장점유율	순보험료수입	시장점유율	
1	Prudential BSN Takaful	2,483	23.0	2,772.2	22.1	11.7
2	Etiqa Family Takaful	1,668	15.5	1,955.7	15.6	17.2
3	Syarikat Takaful	1,655	15.4	1,921.0	15.3	16.0
4	AIA Public Takaful	1,480	13.7	1,700.0	13.5	14.9
5	Great Eastern Takaful	683	6.3	1,127.9	9.0	65.2
6	Sun Life Malaysia Takaful	952	8.8	981.6	7.8	3.1
7	Takaful Ikhlas Family	611	5.7	618.5	4.9	1.2
8	FWD Takaful	420	3.9	487.6	3.9	16.1
9	Hong Leong MSIG Takaful	278	2.6	469.2	3.7	68.9
10	Zurich Takaful	375	3.5	361.3	2.9	-3.7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p. 133;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2),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1", p. 133

-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 부문은 전통형 생명보험시장과 마찬가지로 타카풀설계사와 방카타카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타카풀설계사와 방카타카풀 채널은 가족타카풀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2021년 신계약 원수보험료 기준 각각 시장의 42.2%, 28.1%를 차지함
 - 이 밖에도 직접마케팅·기타가 22.7%를 차지하고 보험중개인은 6.9%를 차지함
 - 전통형 생명보험시장과 달리 최근 가족타카풀 부문에서는 온라인이나 타카풀 사업자 판매 네트워크¹⁷⁾의 직접방문(Over The Counter; OTC)을 통한 상품판매가 확대되고 있음
 - 팬데믹으로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2022년 온라인과 OTC 방식을 통해 발행된 정기가족타카풀 상품의 보험증권 수는 전년 대비 332% 늘어남¹⁸⁾

〈표 II-17〉 말레이시아 가족타카풀 판매채널별 비중(2021년)

(단위: %)

구분	비중
타카풀설계사	42.2
방카타카풀	28.1
직접마케팅·기타	22.7
보험중개인	6.9

주: 가족타카풀 내 신계약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다. 손해보험시장 현황

- 말레이시아 손해보험시장은 크게 전통형 손해보험시장과 일반타카풀시장으로 구분됨

1) 전통형 손해보험시장

-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통형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는 194억 링깃이고, 성장률은 일반타카풀 성장률 대비 낮음

17) 타카풀 사업자의 공식지점이나 공인된 타카풀설계사를 방문하는 것을 의미함

18) Malaysian Takaful Association(2022), "Annual Report 2022", p. 17

- 전통형 손해보험시장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2.4%로, 이는 같은 기간 실질GDP 성장률(8.4%)이나 일반타카ful 성장률(12.6%) 대비 낮은 수치임
 - 일반타카ful의 성장세가 높기 때문에 전통형 손해보험의 성장률은 다소 낮은 상황임
- 2021년 기준 전통형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3,820억 링깃(약 812억 달러), 영업이익은 20억 링깃(약 4억 달러)를 기록함

〈표 II-18〉 말레이시아 전통형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총자산, 영업이익 변화

(단위: 십억 링깃,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원수보험료	금액	17.6	17.4	17.2	17.7	19.4
	성장률(%)	1.9	-0.8	-1.0	2.5	10.0
총자산	금액	33.6	34.8	36.8	38.2	-
	성장률(%)	3.5	3.6	5.9	3.7	-
영업이익	금액	1.1	1.0	1.5	2.0	-
실질GDP 성장률(%)		4.8	4.4	-5.5	3.1	8.7

자료: Malaysian Takaful Association(2022), "Annual Report 2022";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세계은행을 기초로 작성함

○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은 자동차보험이 가장 높은 비중(46.2%)을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전통형 손해보험 상품별 비중은 자동차보험이 46.2%로 가장 높고, 그 뒤로 화재보험(19.7%), 해상·항공·운송보험(7.6%), 개인상해보험(7.4%), 의료·건강보험(5.0%) 순임
- 2022년 개인상해보험은 전년 대비 86.6%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표 II-19〉 말레이시아 전통형 손해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링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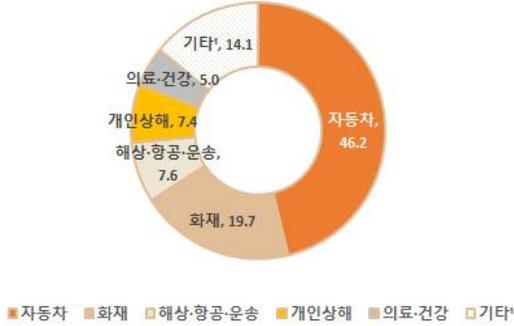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자동차	8,226	8,979	18.3
화재	3,599	3,819	12.2
해상·항공·운송	1,369	1,480	16.2
개인상해	1,000	1,433	86.6
의료·건강	967	976	1.9
기타	2,501	2,741	19.2
합계	17,663	19,428	20.0

주: 기타에는 채권, 건설업·엔지니어링 관련 위험, 배상책임, 산재보험 등이 포함됨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p. 18

〈그림 II-4〉 말레이시아 전통형 손해보험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2022년)

(단위: %)



주: 기타에는 채권, 건설업-엔지니어링 관련 위험, 배상책임, 산재보험 등이 포함됨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p. 18

- 전통형 손해보험시장에는 21개 회사가 존재하며, 외국계 기업(Allianz General Insurance, MSIG Insurance 등)과 현지기업(Etiqa General Insurance, AmGeneral Insurance, Lonpac Insurance 등)이 시장을 분배하고 있음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외국계 기업인 Allianz General Insurance가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13.5%)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0.4% 성장함
 - 그 뒤로 MSIG Insurance(8.4%), Etiqa General Insurance(8.4%), AmGeneral Insurance(7.7%), Lonpac Insurance(7.7%) 등이 비교적 균등한 비중으로 시장을 분배하고 있음
 - MSIG Insurance는 외국계 기업이고, Etiqa General Insurance, AmGeneral Insurance, Lonpac Insurance는 모두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임

〈표 II-20〉 말레이시아 전통형 손해보험회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링깃, %)

순위	회사명	2020		2021		성장률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1	Allianz General Insurance Company	2,371.7	13.4	2,618.4	13.5	10.4
2	MSIG Insurance	1,470.8	8.3	1,628.8	8.4	10.7
3	Etiqa General Insurance	1,429.3	8.1	1,620.6	8.4	13.4
4	AmGeneral Insurance	1,545.4	8.7	1,499.5	7.7	-3.0

〈표 II-20〉 계속

(단위: 백만 링깃, %)

순위	회사명	2020		2021		성장률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5	Lonpac Insurance	1,437.0	8.1	1,482.6	7.7	3.2
6	AXA Affin General Insurance	1,334.9	7.5	1,412.7	7.3	5.8
7	Tokio Marine Insurance	937.9	5.3	1,143.5	5.9	21.9
8	Berjaya Sampo Insurance	873.5	4.9	1,024.6	5.3	17.3
9	Zurich General Insurance	902.6	5.1	958.1	4.9	6.2
10	MPI Generali Insurans	763.1	4.3	847.6	4.4	11.1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p. 41

○ 전통형 손해보험 부문 판매채널별 비중은 보험설계사(63.8%)가 가장 높고 전통형 생명보험과 달리 직접판매(17.5%)와 보험중개인(14.1%)의 비중 또한 높음

- 전통형 손해보험시장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주요 채널이며 2020년 기준 보험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3.8%에 달함
- 직접판매는 전통형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약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형 손해보험회사가 수재한 재보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온라인이나 콜센터를 통한 판매는 증가하고 있지만 높지 않은 수준임
 - 말레이시아인은 대면접촉을 선호하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텔레마케팅의 비중이 높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팬데믹 이후 특히 개인용 자동차보험이나 개인 상해보험 구매 시 온라인 활용도가 높아졌고 애그리게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¹⁹⁾
 - 말레이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보험설계사가 가족 비즈니스 형태로 운영되어왔으나 최근 온라인 판매 채널의 확산으로 신규 보험설계사들의 직무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음
- 전통형 생명보험과 달리 보험중개인 채널은 전통형 손해보험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원수보험료 기준 14.1%를 차지함

¹⁹⁾ 소비자가 중개업체(보험설계사·보험중개인)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 상품을 구매할 경우 이들 기관에 제공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험료 금액을 법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음

〈표 II-21〉 말레이시아 전통형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보험설계사	64.6	65.3	65.6	65.2	63.8
직접판매	17.1	17.1	17.2	17.4	17.5
보험중개인	15.9	14.2	13.9	14.0	14.1
기타	3.4	3.4	3.3	3.4	4.0

주: 1) 전통형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2) 직접판매는 전통형 손해보험회사가 수재한 재보험과 전통형 손해보험회사가 관련 산업기관·대기업·금융그룹에 판매한 기업생 보험이나 온라인, 콜센터 등을 통해 판매한 상품을 포함함

자료: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2) 일반타카풀시장

○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 일반타카풀시장의 원수보험료는 46억 링깃(약 10억 달러)이고 성장률은 실질 GDP와 전통형 손해보험 성장률 대비 높은 특징을 보임

- 일반타카풀시장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12.6%로, 이는 같은 기간 실질GDP 성장률(8.4%)이나 전통형 손해보험 성장률(2.4%) 대비 높은 수치임

〈표 II-22〉 말레이시아 일반타카풀 원수보험료 성장 추이

(단위: 십억 링깃,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타카풀	원수보험료	2.8	3.3	3.5	3.8	4.6
	성장률(%)	8.6	19.1	4.5	10.7	21.1
실질GDP 성장률(%)	4.8	4.4	-5.5	3.1	8.7	

자료: Malaysian Takaful Association(2022), "Annual Report 2022"; 세계은행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은 자동차보험이 가장 높은 비중(66.2%)을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일반타카풀 상품별 비중은 자동차보험이 66.2%로 가장 높고, 그 뒤로 화재보험(18.2%), 개인상해보험(8.0%), 해상·항공·운송보험(0.7%), 의료·건강보험(0.3%) 순임
- 2022년 개인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54.5%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표 II-23〉 말레이시아 일반타카풀 상품별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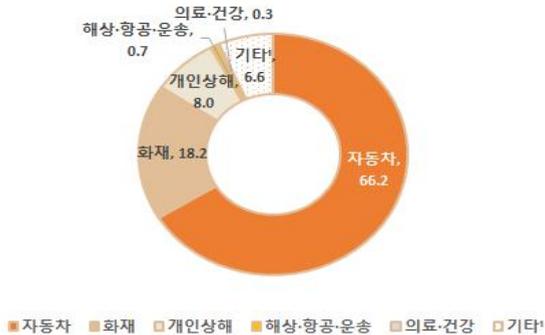
(단위: 백만 링깃, %)

구분	2021년	2022년	증가율
자동차	2,542	3,070	20.8
화재	683	844	23.6
해상·항공·운송	309	369	19.4
개인상해	22	34	54.5
의료·건강	24	16	-33.3
기타	247	305	23.5
합계	3,828	4,638	21.2

주: 기타에는 건설업·엔지니어링 관련 위험, 배상책임, 산재보험 등이 포함됨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p. 24

〈그림 II-5〉 말레이시아 일반타카풀 상품별 원수보험료 비중(2022년)

(단위: %)



주: 기타에는 건설업·엔지니어링 관련 위험, 배상책임, 산재보험 등이 포함됨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p. 24

○ 말레이시아 일반타카풀시장에는 4개의 사업자가 존재하며, 주요 사업자는 현지 기업인 Etiqa General Takaful임

-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 일반타카풀시장의 선두 사업자는 현지 기업인 Etiqa General Takaful이며 해당 사업자는 전체 일반타카풀시장의 45.7%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20.2% 성장함
- 이 밖에도 현지 사업자인 Syarikat Takaful(25.3%), 외국계 사업자인 Zurich General Takaful(17.5%), 현지 사업자인 Takaful Ikhlas General(11.4%)이 시장을 분배함

〈표 II-24〉 말레이시아 일반타카풀 운영사별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링깃, %)

순위	회사명	2021		2022		성장률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1	Etiqa General Takaful	1,720.5	45.3	2,068.8	45.7	20.2
2	Syarikat Takaful	917.4	24.2	1,144.2	25.3	24.7
3	Zurich General Takaful	688.8	18.2	793.5	17.5	15.2
4	Takaful Ikhlas General	467.9	12.3	515.6	11.4	10.2

자료: Insurance Services Malaysia(2023), "Statistical Yearbook Insurance & Takaful Financial Year 2022", p. 79

○ 일반타카풀은 주로 타카풀 사업자의 지점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판매되고 있으며 온라인채널과 설 계사를 통해 판매되기도 함

- 타카풀 사업자는 공식지점이나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장소(Over The Counter; OTC)에서 타카풀 상품을 직접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 온라인을 통해 전통형 보험 및 타카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중개업체에 전달되는 수수료분만큼 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 밖에도 말레이시아에는 약 12,000명의 일반타카풀 설계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력 고령 화가 진행 중이고, 온라인 채널 발달로 신규설계사의 시장 진입 동기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III

호주

1.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가.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변천

- 호주의 총 9개 입법부(연방 입법부, 6개 주 입법부, 2개 준주 입법부)중 일반 보험 관련 입법은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주(State)와 준주(Territory)는 지방정부법에 근거하여 근로자 산재보험과 불법행위 등을 주재함
 - 연방정부의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보험 관련 법안은 호주 건전성 감독기구(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이하 'APRA'라 함) 또는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ASIC'라 함)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고 연방 재무부(Commonwealth Treasury)에 의해 검토됨
 - 재무부로부터 제출된 보험법안은 하원에서 3번의 독회(Reading)를 거쳐 상원에 전달되고, 상원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함
 -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최종적으로 총독의 승인을 받아 법령(Act of Parliament)으로 채택되며, 주와 준주에서의 입법 절차도 연방정부의 입법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됨
- 호주의 보험사업자와 퇴직연금기금(Superannuation funds)은 호주 건전성 감독기구(APRA)에서 시행하는 규제 및 정책 지침(Guidance notes)을 준수해야 함
 - APRA는 1973년 제정된 보험법(Insurance Act)과 1998년 제정된 건전성 규제법(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ct)에 근거하여 금융감독 권한을 지님
 - APRA가 건전성 기준(Prudential Standards)에 새로운 보험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보험 및 연금 산업과 논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논의가 의회에 제출되어 28일 내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법적 규제로서 지위를 획득함
 - 정책 지침은 보험회사 및 퇴직연금기금이 보험 규제 내에서 지켜야 할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됨

○ 호주에서는 의무보험 외에 보험료를 기준과 관련된 규제는 없으나, 2010년 제정된 경쟁 및 소비자보호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과도한 보험료 책정은 불법으로 간주함

- 후주의 사적의료보험(Private Medical Insurance; PMI)과 같이 고도의 규제가 필요한 부문에서의 보험료를 변경 사항은 관련 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함

〈표 III-1〉 호주 주요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 변천

연도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1973	• 보험법(Insurance Act) : 보험시장에 진입하려는 보험자가 갖춰야 할 최소자본 및 건전성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
1986	• 보험계약법(Insurance Contracts Act) : 생명보험 및 PMI(Private Medical Insurance)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동등한 계약을 위한 규제 마련 및 가계보험, 자동차보험, 질병보험과 같은 개인보험에 대한 양식을 포함하여 보험회사 직속 계약 내용을 규정
1992	• 보험인수합병법(Insurance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 호주 보험회사의 인수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제시
1995	•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 생명보험에 대한 주요 법규이며, 생명보험 영업을 하려는 모든 회사가 해당 법규에 따라 생명보험업자로 등록하도록 함
1998	• 호주건전성규제법(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ct) : 호주 건전성감독당국 APRA 설립 → 금융건전성 감독
1999	• 금융개혁법(Financial Sector Reform Act)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SIC 설립 → 금융행위 감독
2001	• 기업법(Corporations Act) : 금융상품 및 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보험업과 관련해서는 보험 중개 영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규정함
	• 호주증권투자위원회법(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 ASIC의 규제 책임 정도를 규정함
	• 손해보험개혁법(General Insurance Reform Act) : 1973년 보험법을 개정하여 감독, 지배구조, 자본적정성 기준 등을 개선함
2008	• 금융체계입법개정법(Financial System Legislation Amendment Act - Financial Claims Scheme and Other Measures) : 손해보험 가입자 보호 체계를 마련
2017	• 기업개정법(Corporations Amendment Act) : 2001년 제정된 기업법을 개정하여 금융자문업자(Financial advisers)의 직업 기준(Professional standards)을 상향

〈표 III-1〉 계속

연도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법개정에 대한 법률(Treasury Laws Amendment Act - Design and Distribution Obligations and Product Intervention Powers) : 소매금융 서비스제공업자에게 상품 설계 및 판매 채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며, ASIC가 금융상품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법개정에 대한 법률(Treasury Laws Amendment Act - Putting Members' Interests First) : DC형 퇴직연금에서 25세 이하 가입자와 퇴직연금 계정 잔액 6,000 호주 달러 이하 가입자에 대한 디폴트 옵션을 해제하고 디폴트옵션과 반대 개념인 active opt-in 제도를 도입 재무법개정에 대한 법률(Treasury Laws Amendment Act - Protecting Your Superannuation) : DC형 퇴직연금에서 16개월 동안 활동이 없는 계정을 제도에서 퇴출하고, 퇴직연금 계정 잔액이 6,000 호주 달러 이하인 계정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연 3%로 제한함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개혁법: 2019년 발간된 Hayne 왕립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대응(Hayne Royal Commission Response) : 왕실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적된 금융산업 소비자 보호 및 직업 기준 향상을 위한 법안을 통합함 금융규제평가기관에 관한 법률(Financial Regulator Assessment Authority Act 2021 and Financial Regulator Assessment Authority - Consequential Amendments and Transitional Provisions Act) : 금융규제기관 평가 당국인 FRAA(Financial Regulator Assessment Authority)를 설립하여 후주의 2개 금융 감독기관인 APRA와 ASIC를 감독하도록 함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나.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

- 호주는 1998년 쌍봉형(Twin peaks) 금융감독체계를 도입하여 APRA이 금융기관 건전성을 감독하고 증권투자위원회인 ASIC가 금융기관·시장을 감독하며, 2022년 설립된 독립 금융감독평가 당국 FRAA(Financial Regulator Assessment Authority)가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감독하도록 함
 - APRA는 보험업 인허가와 보험 및 퇴직연금에 대한 건전성 규제 책임을 맡고 있으며, ASIC는 보험 중개업 인허가, 상품공시기준, 소비자 불만 접수 등 보험시장의 금융 행위 및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감독함
 - 규제 책임의 범위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 공제회와 특정 비영리 지주회사까지 포함함
 - 이러한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경험했던 위험과 압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높은 신뢰를 얻음
 - 그러나 2019년 Hayne 왕립위원회(Hayne Royal Commission)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공개

조사²⁰⁾을 통해 APRA와 ASIC에 감독기구 운영 투명성과 금융행위 감독의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고, 두 기구를 감독할 제3의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설립을 촉구함

- 2021년 제정된 금융규제평가기관에 관한 법률(Financial Regulator Assessment Authority Act 2021 and Financial Regulator Assessment Authority)에 의해 FRAAA가 설립됨

1) 호주 금융감독 관련 최근 변화

- APRA는 2021년부터 모든 보험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위험평가모델을 활용하여 건전성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호주 공공서비스 위원회의 역량평가 보고서(Capability Review) 권고사항에 따라 금융 산업별로 조직을 재편성함
 - 기존의 보험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 모델인 PAIRS(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와 SOARS(Supervisory Oversight and Response System)가 2021년 SRI(Supervision Risk and Intensity) 모델로 통합됨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됨
 - 보험회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건전성 평가는 선임계리사가 담당함
 - 역량평가 보고서(Capability Review)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APRA는 조직을 재편성하면서 퇴직연금 사업 감독 부문을 신설함
 - APRA는 2025~26년까지의 4개년 계획을 통해 공급망 파괴, 인플레이션, 사이버 리스크를 산업의 대응 과제로 정의하였고, 향후 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 저하 요인으로 고금리, 기후변화, 소송위험 등을 꼽음
- 보험회사들은 호주 회계기준원 AASB의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공시정보를 APRA에 제출해야 하며, 2023년부터 IFRS17 회계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도입됨에 따라 APRA는 AASB17 기준에 맞춘 회계 공시 프레임워크를 개정하여 발표함
- 2015년 역량평가 보고서(Capability Review) 권고에 따라 ASIC의 규제기관으로서 감독역량 향상을 위한 공·사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ASIC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ASIC의 감독 활동 범위가 확대됨
 - 예를 들어, 2019년 발의되어 2021년부터 시행된 'The Treasury Laws Amendment Act 2019'는 ASIC가 소매금융상품 설계 및 판매 채널과 관련된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²⁰⁾ 해당 조사는 은행, 퇴직연금, 금융서비스 산업 전반의 지위남용 등에 대해 왕립위원회가 착수한 조사로 2019년 2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고, Hayne 왕립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당시 만연해 있던 금융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APRA와 ASIC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기관 행위 개선을 위한 다수의 조치를 제안함

2) 보험회사의 면허제도와 사업 범위

- 호주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APRA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라이선스 두 가지로 구분되나 특정한 경우 복합 라이선스를 가진 보험회사도 존재함
 - 보험산업 면허를 보유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책임회사나 상호보험회사로 제한되며, 새로운 보험사업자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중 하나의 라이선스를 받게 됨
 - PMI(Private Medical Insurance) 사업자는 생명·손해보험 법인과 별도로 라이선스 승인을 받아야 하며, PMI 상품은 라이선스를 받은 PMI 전문 보험회사만 판매할 수 있음
 - 개인상해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모두 판매될 수 있음
 - 생명·손해보험회사는 은행, 금융지주에 의해 소유될 수 있으나 반드시 분리된 법인으로 존재해야 함
- 보험회사로 승인받기 위한 사업자는 소유권,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데이터 및 시스템에 관련한 조건에 따라 APRA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함
 - 보험회사로 승인받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할 수 있는 의결권 주식은 15%로 제한되며, 그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재무부에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건전성 기준(Prudential standards)이 제시한 거버넌스 조건에 따라 이사회와 내부 감사를 위한 준법감시 위원회, 선임계리사 등을 포함하여 조직 구성이 가능해야 하고 각 구성원이 조직 목적에 맞게 기능할 수 있어야 함
 - 보험회사 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ALM(Asset-Liability Management), 운영리스크, 전략리스크 등 보험사업과 관련한 전반적 위험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 보험회사 운영에 요구되는 적절한 데이터 보유 및 관리 역량과 정보·회계시스템 기준을 충족해야 함

3) 보험회사 최저 자본금과 지급여력제도 규제

-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 인허가를 받은 생명보험회사의 최저 납입자본금은 1,000만 호주 달러, 손해보험회사는 500만 호주 달러이며, 각 회사는 건전성 기준에 명시된 최소요구자본을 초과하여 충분한 자본을 보유할 것이 요구됨
- 호주는 2001년 대형 손해보험회사인 HIH의 파산을 경험하며 일찍이 건전성 감독 체계를 개혁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후 자체 개발한 모델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평가·모니터링함
 - 2021년부터 활용되고 있는 SRI(Supervision Risk and Intensity) 모델은 회복탄력성, 지배구조, 책무

성, 운용성과(퇴직연금사업자 해당), 사이버 보안 등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 건전성 평가에 반영함

- APRA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를 4등급으로 구분하여 감독과 규제를 수행함

○ 호주 보험회사들을 위한 위험 기준 자기자본(RBC) 프레임워크는 LAGIC(Life and General Capital Standard)하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건전성 기준 Prudential Standard LPS 110 Capital Adequacy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본 적정성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해당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내부 자본 적정성 평가 프로세스(ICAAP) 시행, 건전성 감독 기준과 회사 내부 건전성 기준에 적합한 최소 요구자본 보유 및 관련 정보 공시, APRA의 자본 조정 요구에 대한 시정 등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됨
- ICAAP는 건전성 기준이 제시하는 세부 요구 사항에 따라야 하고, 보험회사의 규모, 운영 복잡성, 사업 구성요소 등을 모두 반영하여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 이사회와 승인을 받아야 함
- PCR(Prudential Capital Requirement)로 불리는 최소 요구 자본은 보험위험, 자산 위험, 자산집중 위험, 운영위험을 반영해 산출해야 하며, APRA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내부 산출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두 방법을 혼용하는 것도 가능함
 - 내부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BBB' 등급에 준하는 최소 디폴트 위험 0.5%가 한 회기 동안 적용되도록 산식을 만들어야 함
- PCR을 위한 규제 자본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자본적정성 평가 방법과 유사하게 Tier 1은 기본적인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자본, Tier 2는 추가적인 자본 완충을 위한 보완자본이 포함됨

4) 소비자보호 규제

○ 호주에서는 2008년 손해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 FCS(Financial Claims Scheme)가 마련되었고, 이와 연관된 법안인 The Financial Claims Scheme Levy Act 2008에 따라 파산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됨

- 손해보험회사의 자금 불능 상태가 결정되어 재무장관이 FCS 작동을 요청하면, 일차적으로 APRA가 보험가입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여 보험회사를 청산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을 거침
- 위의 방법을 통해 보험가입자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보험회사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급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함
 - 타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부담금 기준은 원수보험료 기준 최대 5%로 제한함

○ 기업법(The Corporate Act 2001)은 모든 금융서비스 기업이 소비자 분쟁에 대한 내부 처리 방법을

설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과 ASIC가 승인한 외부 분쟁 해결 기관에 소속될 것을 요구함

- 2021년 ASIC는 금융개혁(Hayne Reform)의 일부로서 더욱 철저하고 선제적인 내부 소비자 불만 처리 요건을 도입함

○ 2018년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 CIO(Credit and Investment and Ombudsman), SCT(Superannuation Complaints Tribunal) 등을 합병한 외부 분쟁 해결을 위한 단일체 AFCA(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가 출범함

- AFCA는 개인 소비자 불만 및 소기업의 분쟁을 조정하여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경우 최대 1백만 호주 달러까지 보상하고, 연금 관련 분쟁에 대한 보상금은 월 평균 8700~13,400 호주 달러까지 보상함
- 전신 IOS(Insurance Ombudsman Service)와 달리, AFCA는 보험 분쟁 가이드라인 기준에 엄격한 적법성을 적용하기 보다는 공정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
 - 즉, 보험회사가 분쟁에 대하여 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했다 하더라도 AFCA의 기준에서 공정하지 못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AFCA 출범에 따른 새로운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으로 보험회사들은 보험소비자들의 민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불만을 토로했으나, AFCA는 보험소비자 민원 증가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 청구 서비스 질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함

○ 이외에도 금융서비스위원회(FSC)는 2016~2017년 보험인수 및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산업 규약을 발표하였고, 2023년에는 동 규약을 발전시켜 재무적 어려움, 정신 질환 등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조함

5)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 외국 법인은 현지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자회사, 지점 형태로 호주 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규제 당국에 허가를 받은 미국 보험회사만 지점 설립이 가능함
- 손해보험회사의 지점 설립을 위해 외국 보험회사의 호주 내 사업 영위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대리인 지정이 필요하며, 동 대리인은 호주 내 거주자 이거나 호주 내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
- 특정 규모 이상의 외국 자본의 진입은 사전에 외국인투자검토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의한 승인이 필요함
- 미국, 칠레, 일본, 한국, 싱가포르, 중국, 뉴질랜드 투자자일 경우 교역 조건에 따라 자산규모 약 12억 호주 달러 이상의 현지 회사 지분 보유가 허용되며, 이외에 국가의 투자 승인 한도는 2억 8천만 호주 달러임

6) 보험회사 투자 규제

- 호주 보험사업자 투자 규제의 공통 사항으로는 보험 부채 가치에 동등한 수준의 자산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외 투자 규제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PMI 보험 회사에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됨
 -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투자 규제는 거의 없으나, 손해보험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준비금(Technical reserve)은 채권과 같은 이자부 증권에 투자하고 주주 배당을 위한 자금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을 활용함
 -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1995)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금을 APRA의 승인 없이 자회사를 제외한 관련 회사에 투자할 수 없으나, 자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명보험회사와 관련된 상장회사의 보통주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함
 - PMI 전문 보험회사는 건전성 기준(Prudential Standards) HPS 110의 자본 적정성 요건에 근거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자본관리 기준(투자 목적, 자산 배분 한도, 자산 집중도 제한)이 제시하는 투자 규칙에 따를 것이 요구됨

7) 의무보험

- 2023년 10월 Building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23 법안 개정 초안이 뉴사우스웨일즈 주 의회에 접수되면서, 10년 담보책임보험(Decennial liability insurance)이 뉴사우스웨일즈 의무보험으로 도입될 예정임
 - 10년 담보책임보험이란 건축물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안전성과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험으로, 동 법안은 10년 담보책임보험을 스트라타 제도(Strata Scheme)²¹⁾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함
 - 10년 담보책임보험 의무화로 인해 새롭게 건축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아파트 소유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III-2) 호주 주요 의무보험

종류	관련 내용
사망 및 신체상해 보장을 위한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Green slip'으로, 다른 주에서는 CTP(Compulsory Third Party)라고 불리며, 호주 내 모든 주와 준주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제 3자의 사망, 신체상해 배상 책임을 무제한으로 보장함

21) 스트라타(Strata)는 여러 개로 분할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며, 하나의 건물 또는 대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 이는 Strata Scheme(스트라타 제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III-2〉 계속

종류	관련 내용
근로자 산업재해보험	호주에서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제공되기보다는 보험증권을 통해 제공되며, 모든 주와 준주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유류오염에 대한 선주의 책임보험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선주는 소유 선박으로 인한 유류오염 발생에 대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항공 승객 책임보험	민간항공법(운송자 배상책임)에 따라, 항공료를 지불한 모든 호주 민간 항공사 승객에게 의무보험으로 제공되며 승객의 항공 탑승으로 인한 사망, 신체상해, 수하물 손해 등에 대해 보장함
인공위성 및 로켓 발사 운행사 책임보험	인공위성 및 로켓발사에 대한 우주개발법이 2018 제정된 이후 이와 관련한 의무보험 규칙이 2019년부터 시행되었고, 동 보험은 제3자 책임에 대한 최소보장금액을 1억 호주 달러로 규정함
건축업자 보증보험	태즈메니아와 북부 지역을 제외한 호주 모든 주에 적용되는 의무보험으로, 주거용 건축업자는 완공 후 발견된 결함 및 건축업자의 사망, 실종, 파산에 따른 건축 중단 시 발생하는 손해로부터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무 보증을 받을 필요가 있음. 건축업자 보증보험은 건축 기간을 포함하여 비구조적 결함에 대해 2년, 구조적 결함에 대해 6년간 보증함
뉴사우스웨일즈 스트라타 건축 결함 채권	2018년 이후 체결된 스트라타 건축물 계약 건에 대해 건축 개발자는 재무부 공정거래 위원회에 계약가의 2%에 해당하는 결함 보증 채권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최종 건축물 검사 보고서 발행 완료 이후 60일 또는 건축 완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함
주거용 스트라타 보험	주거용 스트라타 보험은 아파트 블록과 같은 주거 시설의 구조 또는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스트라타 소유권자 또는 아파트 관리 단체의 재산 피해를 보장함
광산 운행사 공적 책임보험	2021년 1월 발효된 남호주 광산 규정에 따라, 광산 운영자는 사업 운영 범위 및 성격에 적합한 보상 한도를 갖춘 공적 책임보험을 마련해야 함
전문직 배상보험	보험중개인과 같은 경우는 연방법에서,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주(State)법에서 전문직 배상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률 협회와 같은 대부분의 전문직 협회에서는 전문직 배상보험 가입을 전문가 자격증 취득의 조건으로 삼고 있음
457 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을 위한 건강보험	출입국 관리 규정에 따라 호주는 457 비자 소지자(임시 근로 허용 비자)와 그 가족의 입국 조건으로 상해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함. 이를 파견근로자(Inpatriate) 의료비용보험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동 보험은 손해보험, 건강급여기관, 또는 PMI 전문보험회사로 승인된 보험사업자에 의해 제공됨
임상시험 책임보험	빅토리아(VIC), 호주 수도 준주(ACT) 및 뉴사우스웨일즈(NSW)의 공중 보건 기관은 임상 시험 후원자에게 임상 수행 조건으로 제3자 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APRA가 승인한 보험회사 또는 Standard & Poor's 신용 등급이 A- 이상 인 해외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해야 함
설계 및 건축 전문가 보험	2020년 6월 통과된 Design and Building Practitioners Act 2020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건물 결함에 대한 법적 배상 의무를 뉴사우스웨일즈의 건축업자, 설계자, 자재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에게 부과하고, 이에 따라 설계 실무자, 건축 실무자 및 전문 엔지니어는 자신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책임을 지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함

자료: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2. 보험시장 현황

가. 전체 보험시장 현황

- Swiss Re에 따르면 호주 보험시장은 2022년 세계 보험시장의 1.1%를 차지하며 세계 14위의 보험 시장 규모를 기록함
 - 2022년 호주 보험산업의 원수보험료는 718억 미국 달러로 한국 보험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며, 아태 선진시장에서는 일본(4위), 한국(7위), 대만(11위) 다음으로 높음
 - 업권별로 보면 2022년 호주 생명보험시장은 세계 보험료의 0.6%를 차지하여 세계 24위의 규모를 보여 주고 있으며, 손해보험시장은 세계 보험료의 1.4%를 차지하여 세계 10위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호주 보험산업의 보험침투도는 4.2%이며 보험밀도는 2,758 미국 달러로, 아태 선진시장 중에서 중하위에 위치하고 있음
 - 호주 보험산업의 보험침투도는 아태 선진시장 중에서 6위를 차지하여 뉴질랜드(3.8%)와 유사하며, 보험밀도는 아태 선진시장 중에서 5위를 차지하여 일본(2,690 미국 달러)과 비슷함
 -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보험침투도는 각각 0.9%와 3.3%이며,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보험밀도는 각각 609 미국 달러, 2,140 미국 달러임

〈표 III-3〉 아태 선진국의 보험산업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2년)

(단위: %, 백만 미국 달러, %, 미국 달러)

구분	세계순위	점유율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일본	4	5.0	337,812	8.2	2,690
한국	7	2.7	182,846	11.1	3,541
대만	11	1.3	86,475	11.4	3,662
호주	14	1.1	71,805	4.2	2,758
홍콩	15	1.0	68,767	19.0	9,159
싱가포르	19	0.7	46,984	9.2	7,563
뉴질랜드	43	0.1	9,067	3.8	1,768

주: 시장규모는 전체 보험산업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Swiss Re(2023), "World insurance", sigma 3/2023

- 호주 보험시장은 2022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비중이 각각 22.1%, 77.9%로 손해보험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호주 생명보험업 원수보험료가 2015년부터 6년 동안 감소하였다가 2021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전체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의 52.8%에서 2022년에는 22.1%로 축소됨

-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약화, 시장금리의 하락 등이 생명보험업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함²²⁾
- 호주 손해보험업 원수보험료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보험산업 대비 비중이 2014년 47.2%에서 2022년 77.9%로 상승함

〈표 III-4〉 호주 보험산업 업권별 원수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20	2021	2022
생명보험업	62,327(52.8)	58,139(50.2)	50,695(45.9)	21,187(23.2)	21,358(22.1)	22,868(22.1)
손해보험업	55,728(47.2)	57,701(49.8)	59,807(54.1)	70,165(76.8)	75,307(77.9)	80,716(77.9)
전체	118,055	115,840	104,443	91,352	96,665	103,584

주: 괄호 안은 구성비임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호

- 호주 생명보험시장은 1990년대부터 저축성보험이 퇴직연금²³⁾으로 대체되었으며, 2010년대에는 호주 현지 보험회사가 외국 보험회사에게 매각되면서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함
- 현재 호주 보험산업은 전반적으로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 2022년 하반기 연간보험료 기준으로 호주 생명보험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임
 - 다만,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호주 손해보험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와 현지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비슷함

나. 생명보험시장 현황

- 2022년 기준 호주 생명보험시장 순보험료는 228억 호주 달러이며, 순보험료는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됨
 - 2022년 기준 호주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은 1,234억 호주 달러이며, 세후 이익은 4억 호주 달러를 기록함

²²⁾ Swiss Re(2020), "Advanced Asia-Pacific", sigma extra 4/2020; PWC(2017), "Future of Life Insurance in Australia: Profitable growth in challenging times"

²³⁾ 호주 퇴직연금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은 1992년부터 강제 가입 제도로 도입됨

- 한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호주 생명보험시장의 순보험료 성장률은 같은 기간 실질 GDP 성장률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표 III-5〉 호주 생명보험 순보험료, 총자산, 세후 이익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순보험료	금액	40,364	30,276	21,144	21,013	22,834
	성장률	-4.0	-25.0	-30.2	-0.6	8.7
총자산	금액	222,358	202,585	130,220	132,017	123,380
	성장률	-4.3	-8.9	-35.7	1.4	-6.5
세후 이익	금액	583	-362	-110	1,161	407
실질 GDP 성장률		2.7	1.8	-6.7	6.1	3.4

자료: APRA(2023), "Quarterly life insurance performance statistics"; 세계은행 자료

○ 상품별 연간보험료 비중은 사망보험, 소득보상보험, 완전영구장래보험(TPD), 중대질병보험이 96.5%로서 대부분을 차지함²⁴⁾

- 2022년 하반기 연간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상품별 점유율은 사망보험이 33.5%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소득보상보험(31.8%), 완전영구장래보험(22.1%), 중대질병보험(9.1%) 순임
 - 2020년 하반기 대비 2022년 하반기 사망보험의 비중은 1.1%p 감소하였으며, 소득보상보험의 비중은 2.1%p 증가하였고, 완전영구장래보험과 중대질병보험의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 2020~2022년 전체 대비 장래보험의 비중은 2%대를 유지하였음

〈표 III-6〉 호주 생명보험 상품별 연간보험료¹⁾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사망보험	금액	5,617	5,874	5,917	6,033	6,004	6,087
	비중	34.6	35.3	34.5	34.1	33.8	33.5
소득보상보험 ²⁾	금액	4,835	5,031	5,261	5,490	5,583	5,787
	비중	29.8	30.2	30.7	31.1	31.4	31.8

²⁴⁾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3층의 연금제도로 구성되고 있음. 2층의 퇴직연금(슈퍼에누에이션)은 1992년부터 의무가입 제도로 전향되어 호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층의 개인연금은 우리나라의 개인형 IRP와 유사하며,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자발적 기여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형태를 의미함. 호주 APRA에서 허가받은 생명보험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을 취급할 수 있음. 호주 생명보험회사는 1990년대 이후부터 연금기능이 있는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음

〈표 III-6〉 계속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완전영구 장애평험 ³⁾	금액	3,514	3,476	3,656	3,860	3,892	4,019
	비중	21.6	20.9	21.3	21.8	21.9	22.1
중대질병보험	금액	1,504	1,532	1,580	1,599	1,625	1,652
	비중	9.3	9.2	9.2	9.0	9.1	9.1
장래보험	금액	455	454	451	445	439	437
	비중	2.8	2.7	2.6	2.5	2.5	2.4
기타 생명보험 ⁴⁾	금액	320	287	264	242	223	209
	비중	2.0	1.7	1.5	1.4	1.3	1.1
합계	금액	16,246	16,654	17,128	17,670	17,765	18,190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연간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위험보장을 위해 1년 동안 수취한 영업보험료를 의미함

2) 소득보상보험은 개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개인형 소득보상보험을 의미하며,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애로 가입자가 일할 수 없는 동안에 기존 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상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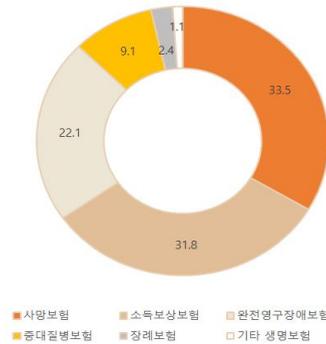
3) 완전영구장애평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기금에 디폴트 형태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의미하며, 이 보험은 질병 또는 재해로 장애를 입어 근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진단받을 가입자에게 일시금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임

4) 기타 생명보험은 상해보험, 소비자신용보험 등이 있음. 소비자신용보험은 사망 등의 보험사고로 인해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대신 상환해주는 보험상품임

자료: KPMG(2023), "Life Insurance Insights 2023"(<https://kpmg.com/au/en/home/insights/2023/10/life-insurance-insights.html>)

〈그림 III-1〉 호주 생명보험 상품별 연간보험료 비중(2022년 하반기)

(단위: %)



자료: KPMG(2023), "Life Insurance Insights 2023"(<https://kpmg.com/au/en/home/insights/2023/10/life-insurance-insights.html>)

- 호주 생명보험시장에는 2022년 기준 24개 회사가 영업하고 있으며, 상위 4개 보험회사인 TAL Life, AIA Australia, Zurich Australia, MLC Limited는 모두 외국 보험회사임
 - 2022년 하반기 연간보험료 기준 TAL Life, AIA Australia, Zurich Australia, MLC Limited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3.6%, 18.0%, 14.4%, 10.4임
 - TAL Life는 2011년에 일본 Dai-ichi Life의 자회사가 되었으며 2022년 8월에 Westpac Life Insurance Services Limited를 인수하여 회사명을 TAL Life Insurance Services Limited로 변경함
 - MLC Limited는 2016년에 일본 Nippon Life의 자회사가 되었으며 MLC Wealth Holdings Limited의 라이선스하에 MLC 브랜드를 사용하지만 MLC Wealth Holdings Limited의 자회사가 아님
 - 생명보험시장 상위 10위에 진입한 현지 보험회사인 QInsure Limited, ClearView Life Assurance, NobleOak Life는 2022년 하반기 연간보험료 기준 각각 3.3%, 1.8%, 1.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표 III-7〉 호주 생명보험회사별 연간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순위	회사명	2022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성장률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1	TAL Life ¹⁾	6,114	33.6	5,820	32.9	5.1
2	AIA Australia	3,267	18.0	3,296	18.7	-0.9
3	Zurich Australia ²⁾	2,611	14.4	2,420	13.7	7.9
4	MLC Limited	1,894	10.4	1,855	10.5	2.1
5	Resolution Life Australasia ³⁾	1,370	7.5	1,411	8.0	-2.9
6	MetLife Insurance	913	5.0	899	5.1	1.6
7	QInsure Limited	594	3.3	578	3.3	2.9
8	Hannover Life Re of Australasia	423	2.3	559	3.2	-24.3
9	ClearView Life Assurance	325	1.8	297	1.7	9.4
10	NobleOak Life	295	1.6	242	1.4	22.0
	합계	18,190	100.0	17,670	100.0	2.9

주: 1) 2021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 TAL Life의 보험료는 자회사인 TAL Life Insurance Services Limited의 보험료를 포함함

2) 2021년 하반기 Zurich Australia의 보험료는 OnePath Life의 보험료를 포함함

3) Resolution Life Australasia의 전신은 AMP Life임

자료: KPMG(2023), "Life Insurance Insights 2023"(https://kpmg.com/au/en/home/insights/2023/10/life-insurance-insights.html)

- 호주에서는 생명보험시장이 단체보험시장과 개인보험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개인보험시장에서는 2019년 기준 독립투자자문업자(IFA)가 절반 이상을 주도함
 - 호주에서는 대부분이 퇴직연금 기금(슈퍼애뉴에이션)을 통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며, 퇴직연금 기금 등이 제공하는 단체보험이 전체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임²⁵⁾

- 대부분 퇴직연금 기금은 사망보험, 완전영구장애보험, 소득보상보험 등을 제공하며,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동으로 가입하지만 원하지 않는 경우 취소할 수 있음²⁶⁾
- 독립투자자문업자 채널 외에도 개인보험시장에서는 직접판매 채널(22.0%), 전속대리인 채널(13%), 방카슈랑스 채널(10%)이 활용되고 있음
 -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생명보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퇴직연금 기금이나 독립투자자문업자 채널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접판매 채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²⁷⁾

〈표 III-8〉 호주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비중¹⁾ 변화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독립투자자문업자	45.0	48.0	51.0	53.0	55.0
직접판매 ²⁾	18.0	15.0	21.0	22.0	22.0
전속대리인	15.0	15.0	15.0	14.0	13.0
방카슈랑스	22.0	22.0	13.0	11.0	10.0

주: 1) 생명보험 신계약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2) 직접판매는 보험회사 개설하는 콜센터, 웹사이트, 지점, 쇼핑물에 위치한 컨셉스토어 등을 포함함

자료: AXCO(2023),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호주 생명보험업의 자산운용은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 2022년 자산운용 구성비는 채권(73.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식(19.5%), 부동산(5.5%), 기타 자산(1.1%) 순임
- 2018년과 비교할 때 생명보험업의 운용자산 구성비는 채권 비중이 증가하고 주식 비중이 감소한 반면, 부동산과 기타 자산 비중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표 III-9〉 호주 생명보험업 운용자산¹⁾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	금액	80,388	77,098	74,318	75,059	70,792
	구성비	41.2	43.9	72.7	73.0	73.9
주식	금액	103,703	90,507	21,771	20,692	18,689
	구성비	53.2	51.5	21.3	20.1	19.5

²⁵⁾ KPMG(2023), "Life Insurance Insights 2023"(<https://kpmg.com/au/en/home/insights/2023/10/life-insurance-insights.html>)

²⁶⁾ Real Insurance, "Life insurance with super vs direct vs via broker"(<https://www.realinsurance.com.au/life-insurance/super-direct-broker>)

²⁷⁾ Real Insurance, "Why buy Life Insurance direct from an Insurer?"

〈표 III-9〉 계속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부동산	금액	10,279	7,204	5,603	5,900	5,287
	구성비	5.3	4.1	5.5	5.7	5.5
기타 자산 ²⁾	금액	665	1,009	540	1,140	1,056
	구성비	0.3	0.6	0.5	1.1	1.1
합계	금액	195,035	175,818	102,232	102,792	95,82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운용자산은 현금과 예금을 포함하지 않음

2) 기타 자산은 대출, 신탁 등 금융 상품을 포함함

자료: APRA(2023), "Quarterly Life Insurance Performance Statistics June 2023"

다. 손해보험시장 현황

○ 2022년 기준 호주 손해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644억 호주 달러이고,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전년과 비교할 때 소폭 낮아졌음

- 2022년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1,631억 호주 달러, 세후 이익은 22억 호주 달러를 기록함
- 한편, 최근 5년간(2018~22년) 손해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같은 기간 실질 GDP 성장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III-10〉 호주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¹⁾ 총자산, 세후 이익 변화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보험료	금액	48,345	50,265	53,188	59,131	64,430
	성장률	7.6	4.0	5.8	11.2	9.0
총자산	금액	123,961	129,767	143,892	154,932	163,144
	성장률	4.5	4.7	10.9	7.7	5.3
세후 이익	금액	3,386	3,136	73	1,683	2,194
실질 GDP 성장률		2.7	1.8	-6.7	6.1	3.4

주: 1) 재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원수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 수입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APRA(2023), "Quarterly general insurance performance statistics December 2002 to June 2023"

○ 상품별 보험료 비중은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화재 및 산업특수위험보험(ISR)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손해보험 중에서는 공공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하고 수입보험료 비중은 모두 1% 미만임

- FY2023 수입보험료 기준 손해보험 상품별 비중은 자동차보험(36.3%)이 가장 높고, 그 뒤로 주택보험(22.0%), 화재 및 산업특수위험보험(13.8%) 순임
 - FY2019 대비 FY2023 화재 및 산업특위험보험의 비중은 2.5%p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2.6%p 감소하였고, 주택보험의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 이밖에 FY2023 수입보험료 기준 전체 손해보험 대비 공공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모기지보험, 기타 손해보험의 비중은 각각 6.3%, 6.2%, 5.0%, 1.1%, 9.4%임

〈표 III-11〉 호주 손해보험 상품별 수입보험료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FY2019 ¹⁾	FY2020	FY2021	FY2022	FY2023
자동차보험	금액	16,274	16,738	17,746	18,997	21,505
	비중	38.9	38.2	37.3	36.1	36.3
주택보험	금액	9,030	9,567	10,395	11,415	13,017
	비중	21.6	21.8	21.8	21.7	22.0
화재 및 산업특수위험보험	금액	4,716	5,330	5,912	6,943	8,170
	비중	11.3	12.2	12.4	13.2	13.8
공공책임보험	금액	2,514	2,652	3,060	3,346	3,739
	비중	6.0	6.1	6.4	6.4	6.3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금액	2,106	2,655	3,274	3,869	3,669
	비중	5.0	6.1	6.9	7.3	6.2
사용자배상책임보험	금액	1,880	1,811	2,192	2,620	2,957
	비중	4.5	4.1	4.6	5.0	5.0
모기지보험	금액	839	966	1,343	1,169	673
	비중	2.0	2.2	2.8	2.2	1.1
기타 손해보험 ²⁾	금액	4,448	4,087	3,684	4,292	5,558
	비중	10.6	9.3	7.7	8.2	9.4
합계	금액	41,807	43,806	47,606	52,651	59,288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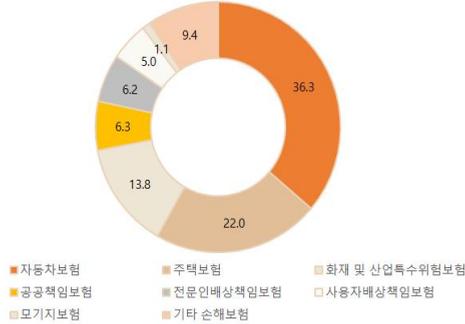
주: 1) 호주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2) 기타 손해보험은 해상, 항공, 운송 등 관련 손해보험 등이 포함됨

자료: KPMG(2023), "General Insurance Industry Review 2023"(<https://kpmg.com/au/en/home/insights/2021/07/general-insurance-insights-dashboard.html>)

〈그림 III-2〉 호주 손해보험 상품별 수입보험료 비중(FY2023)

(단위: %)



주: 기타 손해보험은 해상, 항공, 운송 등 관련 손해보험 등이 포함됨

자료: KPMG(2023), "General Insurance Industry Review 2023"(<https://kpmg.com/au/en/home/insights/2021/07/general-insurance-insights-dashboard.html>)

○ 호주 손해보험시장에는 70개²⁸⁾ 회사가 영업하고 있으며, Suncorp Insurance Holdings 및 Insurance Australia Group, QBE Insurance를 비롯한 현지 보험회사들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음

-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Suncorp Insurance Holdings(16.0%), QBE Insurance(12.1%)는 각각 1, 3위를 차지하였으며, Insurance Australia Group의 자회사인 Insurance Australia Limited(15.5%) 및 Insurance Manufacturers of Australia Pty(7.1%)가 각각 2, 5위를 차지하였음
 - Insurance Australia Group은 산하 자회사들의 보험료가 통합되지 않고 있어 전체 수입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Insurance Australia Limited 및 Insurance Manufacturers of Australia Pty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호주에서 가장 큰 보험그룹임
- 그 뒤로 Munich Reinsurance(3.6%), Chubb Insurance Australia(3.5%), The Hollard Insurance(3.1%), Zurich Australian(3.1%), Auto & General Insurance(2.7%) 등이 비교적 균등한 비중으로 시장을 분배하고 있음
 - Munich Reinsurance, Chubb Insurance Australia, The Hollard Insurance, Zurich Australian은 모두 외국 보험회사이고, Auto & General Insurance는 현지 보험회사임

²⁸⁾ 영업 등록되었으나 영업하지 않는 보험회사는 제외됨

〈표 III-12〉 호주 손해보험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순위	회사명	2022		2021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Suncorp Insurance Holdings ¹⁾	9,245	16.0	8,651	16.3	6.9
2	Insurance Australia Limited ²⁾	8,959	15.5	8,620	16.2	3.9
3	QBE Insurance	6,995	12.1	6,293	11.8	11.2
4	Allianz Australia	6,437	11.2	5,408	10.2	19.0
5	Insurance Manufacturers of Australia Pty ²⁾	4,095	7.1	3,920	7.4	4.5
6	Munich Reinsurance	2,077	3.6	2,119	4.0	-2.0
7	Chubb Insurance Australia	2,035	3.5	1,738	3.3	17.1
8	The Hollard Insurance	1,783	3.1	1,613	3.0	10.6
9	Zurich Australian	1,769	3.1	1,246	2.3	42.0
10	Auto & General Insurance	1,575	2.7	1,278	2.4	23.3
합계 ³⁾		57,726	100.0	53,156	100.0	8.6

주: 1) Suncorp Insurance Holdings는 자회사인 AAI Limited를 통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음

2) Insurance Australia Limited 및 Insurance Manufacturers of Australia Pty는 Insurance Australia Group의 자회사임

3) 재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포함됨. 수입보험료가 작은 일부 보험회사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KPMG(2023), "General Insurance Industry Review 2023"(<https://kpmg.com/au/en/home/insights/2021/07/general-insurance-insights-dashboard.html>)

○ 손해보험업 판매채널별 비중은 생명보험업과 달리 보험중개인(51.0%) 채널이 가장 높고 온라인판매 채널을 포함한 직접판매(40.5%) 채널의 비중도 높음

- 손해보험시장에서는 보험중개인 채널이 주요 채널이며 2018년과 비교할 때 2021년 보험중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7.5%에서 51.0%로 확대됨
- 2021년 기준 원수보험료 기준 직접판매(온라인판매 채널 포함) 채널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약 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는 2018년 11.0%에서 17.5%로 상승함
 - 직접판매 채널에서는 보험판매가 지점에서 콜센터로, 그리고 콜센터에서 온라인 채널(특히 모바일)로 가속화되는 장기적인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대리인 채널은 손해보험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작지만, 호주 농촌지역에서 주로 활용되며, 보험대리인 채널을 통한 판매는 2018년 8.0%에서 2021년 5.0%로 감소함
- 방카슈랑스 채널은 손해보험회사에게 주요 판매채널이 아니며, 은행 소유 보험회사인 Commonwealth Insurance 및 Westpac General Insurance만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모기지보험을 판매함

- 호주 은행들은 영업 관행으로 인한 평판 손상으로 자산관리, 생명과 손해보험 판매 등 비은행 금융서비스에서 퇴출되었음

〈표 III-13〉 호주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비중¹⁾ 변화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보험중개인	47.5	48.0	49.0	51.0
직접판매 ²⁾	40.0	40.5	40.55	40.5
온라인판매 ³⁾	11.0	13.0	15.0	17.5
보험대리인	8.0	7.5	7.0	5.0
방카슈랑스	4.5	4.0	3.5	3.5

주: 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2) 직접판매는 보험회사 개설하는 콜센터, 지점, 쇼핑물에 위치한 컨셉스토어 등을 포함함

3) 온라인판매는 직접판매 방식에 속하지만 최근에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서 별도로 집계되고 있음

자료: AXCO(2023),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 호주 손해보험업에서는 자산운용이 금리 민감 자산과 신탁 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2년 자산운용 구성비는 금리 민감 자산(80.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탁 자산(14.3%), 대출형 자산(3.0%), 주식(1.9%), 기타 자산(0.4%), 부동산(0.2%) 순임
- 2018년과 비교할 때 손해보험업의 운용자산 구성비는 금리 민감 자산 비중이 증가하고 신탁 자산 비중이 감소한 반면, 대출형 자산, 주식, 부동산과 기타 자산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표 III-14〉 호주 손해보험업 운용자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리 민감 자산 ¹⁾	금액	52,578	54,429	57,974	64,331	66,690
	구성비	77.4	77.5	77.1	79.1	80.1
신탁 자산	금액	11,196	11,100	13,459	13,193	11,944
	구성비	16.5	15.8	17.9	16.2	14.3
대출형 자산	금액	2,594	2,855	2,377	2,050	2,512
	구성비	3.8	4.1	3.2	2.5	3.0
주식	금액	1,477	1,324	889	1,127	1,623
	구성비	2.2	1.9	1.2	1.4	1.9
부동산	금액	105	119	116	120	203
	구성비	0.2	0.2	0.2	0.1	0.2

〈표 III-14〉 계속

(단위: 백만 호주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기타 자산 ²⁾	금액	446	435	405	476	307
	구성비	0.7	0.6	0.5	0.6	0.4
합계	금액	67,962	70,261	75,221	81,296	83,27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금리 민감 자산은 예금, 금융회사채, 국제 등이 포함됨

2) 기타 자산은 펀드 등 금융상품을 포함함

자료: APRA(2023), "Quarterly general insurance performance statistics December 2002 to June 2023"

IV

시사점

1. 태국

-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두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이며, 웰니스·의료 관광 분야에서 아시아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출산율 감소, 초고령 사회 진입 전망, 주변국 대비 높은 최저 임금,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는 국가임
 - 태국은 청정해안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유입됨에 따라 최근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음
- 태국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27위이며,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및 생명·손해보험회사 투자 규제가 꾸준히 완화된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태국 보험회사 지분에 대한 외국인 소유 한도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꾸준히 완화되어,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재량하에 최대 49%까지, 태국 보험감독위원회의 추천과 태국 재무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49% 이상의 지분 소유도 허용됨
 - 투자 범위와 관련된 규제 또한 꾸준히 완화되어, 생명·손해보험회사는 사모펀드, 부동산, 뮤추얼 펀드, 인 프라 투자신탁에 더해 해외 벤처캐피탈, 신디케이트 론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됨
-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저금리 지속에 기인하여 변액보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21년까지 5년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경험했다는 점,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기간 발생한 상당 규모의 영업손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말레이시아

- 다문화·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부존자원과 더불어 이슬람금융의 허브로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중진국 함정 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 중임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다민족 국가이며 영토 내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어 서비스업, 산업, 농업과 더불어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국가임
 - 말레이시아 경제 발전의 핵심 동인으로 꼽히는 이슬람금융의 규모는 세계 3위, 아시아 1위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채권 '수쿠크(Sukuk)' 최대 발행국임
 - 다만 장기집권층의 부정부패, 낮은 인건비로 인한 두뇌 유출 현상, 친 말레이계(부미푸트라) 정책으로 인한 인종 차별 문제 등으로 증진국 함정에 빠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이코노미 마다니(Ekonomi MADANI)를 추진 중임
- 보험 감독 당국인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보험침투도 제고 및 미소보험 계약자 수 확대를 목표로 금융 부문 청사진 2022~2026을 발표하여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 중임
- 금융 부문 청사진의 주요 목표는 보험 및 타카풀의 보험침투도를 4.8~5.0%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미소보험 및 미소타카풀 개인 가입자 수를 약 두 배로 확대하는 것에 있음
 - 동 청사진에는 보험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 중개 회복력 제고, 가계 및 기업 보호 강화, 공정한 금융 시스템 구축,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금융서비스 환경 지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이 포함됨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율법에 기반한 타카풀시장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고, 해당 시장의 보험료 성장률이 전통형 보험시장의 보험료 및 실질 GDP 성장률에 비해 높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타카풀시장 중에서도 생명보험업에 속하는 가족타카풀 부문에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 국내 보험회사는 가족타카풀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진출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3. 호주

- 호주는 효과적인 인구·이민 정책과 더불어 1차 산업과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의 공존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되나, 자연재해 위험 및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이 외부적인 성장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호주는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으로 이민 정책에 따른 꾸준한 인구 유입이 타 선진국 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호주는 풍부한 광물 및 농·축산물을 바탕으로 한 1차 산업의 발전과 1차 산업에서 창출되는 대외 수요 증가 및 투자 확대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금융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음

- 다만, 잦은 대규모 산림화재, 1차 산업에 치중된 수출구조, 높은 대외자금 조달 및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경제성장 위협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호주의 친기업 환경은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이어 금융 및 보험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민간기업 인프라 축진이 기대되고 있으며,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추진으로 전기차 수요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최근 금융서비스 면허 취득 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선진 금융 국가로서 입지가 더욱 다져질 것으로 예상됨
- 호주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14위이며, 외국 자본의 시장 진입에 우호적이므로 외국 보험회사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성숙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외국인은 호주 현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자회사, 지점 형태로 보험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음
 - 다만, 호주 손해보험시장은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약화 등으로 2015년 이후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1. 태국

가. 국가 개요

-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두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이며,¹⁾ 웰니스·의료관광 분야에서 아시아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반도 중앙부에 위치하며,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시장과 접하고 있는 국가임
 - 2018년 태국 경제성장률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확충, 서비스 수출 호조 등으로 4.2%를 기록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6.2%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2022년 하반기부터 관광산업이 회복함에 따라 2022년 태국 경제성장률은 2.6%를 기록함
 - 2022년 글로벌웰니스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에 따르면 태국은 의료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 부문에서 호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태국은 청정해안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대국이며, 태국관광협회(Association of Thai Travel Agents; 이하 'ATTA'라 함)에 따르면 2022년 해외 관광객은 1,180만 명임
 - 태국 정부는 2022년 10월 웰니스 관광 거점 단지 3곳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²⁾ 2023년 1월에는 관광산업 개발 5개년 계획을 통과시키는 등 지속해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반면 태국은 출산율 감소, 초고령 사회 진입 전망, 주변국 대비 높은 최저 임금,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태국의 총 인구는 2020년 6,980만 명에서 2021년 7,008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신생아 수는 2020년 58만 명에서 2021년 54만 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함
 - 2021년 기준 태국의 합계출산율은 1.51명이며, 이는 주변국인 베트남(2.53명), 캄보디아(2.50명) 보다 낮은 수치임

1) 아세안 10개국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포함됨. 아세안 국가의 GDP는 인도네시아가 1조 3,900억 달러로 가장 높으며,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의 순서로 뒤를 잇고 있음

2) 웰니스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이며, 웰니스 관광은 여행 본연의 목적뿐만 아니라 심신의 행복, 건강, 등을 함께 추구하는 관광 방식을 의미함

- 태국 민간 연구기관인 카시콘리서치센터(Kasikorn Research Center)는 경제 악화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였으며, 덩크족 증가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발표함
 - 태국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1,3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시콘리서치센터는 2029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
 -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 NESDC)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태국의 노동인구 규모는 3,878만 명이나, 2040년에는 약 3,650만 명을 기록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함
 - 태국의 최저 임금은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태국 정부는 2023년 숙련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기존 465바트(13달러)에서 700바트(19.7달러)로 인상함
 - 2022년 기준 태국의 최저임금은 8.6달러였으며, 이는 주변국인 미얀마(2.6달러), 라오스(2.5달러), 캄보디아(6.5달러), 베트남(5.6~6.3달러)보다 높은 편임
 - 태국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기준 1.2%였으나, 2022년에는 14년 만의 최고 상승률인 6.3%를 기록함
 - 바트는 2022년 4분기 기준 달러당 36.38바트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 1분기 기준 달러당 33.9바트까지 하락함
 - 태국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으며,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태국 경제가 활성화되면 바트화 가치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 태국의 헌법은 1932년 입헌군주제로 전환된 이후 거듭된 군사 쿠데타와 반 쿠데타로 인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국민투표를 거쳐 2017년부터 발효된 현행 헌법은 군주와 군부로 구성된 전통 기득권층의 세력을 확대하였음
- 헌법 개정으로 국회의 상원은 군부에 의해 전적으로 임명되는 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헌법적 위기를 군주가 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군주의 힘은 확장되었음
- 태국에서 투표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보장되며, 투표는 강제적이지만 고정된 징벌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음

〈부록 표 1〉 주요 국가 지표¹⁾

항목	지표 현황	항목	지표 현황
면적	51만 3,120km ² (한반도의 2.3배)	인구	7,160만 명(세계 20위)
생산인구 비중	70.9%	고령화 비중	12.9%
소비자물가상승률	6.1%	경제성장률	2.6%
GDP	4,953억 달러	1인당 GDP	6,909달러
기대 수명(남)	74.4세	기대 수명(여)	81.0세

주: 1) 기대 수명(2019년 기준) 제외 모두 2022년 기준임

자료: The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 WHO(2023). "World health statistics 2023: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OTRA 국가지역정보(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ation/actionNatlemList.do?pageNo=&pagePerCnt=10&SITE_NO=3&MENU_ID=220&CONTENTS_NO=1&pRegnCd=01&pNatCd=764&chkNatSn=764none)를 기초로 작성함

나. 경제

-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 NESDC)는 1961년부터 5개년 중장기 계획,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National Economic Social Development Plan; NESDP)을 추진하고 있음
 - 태국은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0년대에 기초 산업인 농업과 산업, 광업 위주로 발전계획을 편성했고, 1970년대에는 상업과 서비스업의 발전계획 추가, 1980년대에는 중앙 분권 계획을 최초 도입했으며, 1990년대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
 - 이후 2000년대부터는 창조산업(10차), 지식기반산업(11차), 혁신주도개발 전략(12차)을 수립함

〈부록 표 2〉 태국 주요 경제정책 변천

차수	시기	경제·사회 상황	주요 특징
1차	1961~1966	저개발 농경사회	• 경제, 행정, 인력 등에 걸친 보편적 계획 • 농업 및 산업, 광업 등 영역별 계획 수립
2차	1967~1971		
3차	1972~1976	중앙집권적 정책, 1차 오일쇼크	• 기존 5개년 계획 항목에 지역별 발전계획, 상업 및 서비스업 발전계획 추가
4차	1977~1981	소득격차, 환경 문제	• 소득 분배 계획, 무역 및 관광 계획 수립
5차	1982~1986	국내 정치 안정, 2차 오일쇼크	• 중앙 분권 계획 수립 • 권역별(북부, 남부, 국경 지역 등) 계획 수립
6차	1987~1991	국제 경제 불안 지속	• 행정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 공기업 발전계획 수립 등 정부 주도의 성장 추구

(부록 표 2) 계속

차수	시기	경제·사회 상황	주요 특징
7차	1992~1996	민주화 진전	• 신 경제 구역 발전계획 및 삶의 질 개선 계획 수립
8차	1997~2001	동아시아 외환위기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계획 등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 시장 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9차	2002~2006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외환위기 극복	• 자족경제(Self-Sufficiency Economy) 도입 • 인간·사회·경제·환경 균형개발 추구
10차	2007~2011	글로벌 금융위기, 정정 불안	• 친환경 성장 • 행복 사회 추구
11차	2012~2016	안보, 기후변화, 테러 이슈 증대,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 정의 사회 구현 • 지식기반경제 추구
12차	2017~2021	군부정권 지속, 중진국 함정 극복 과제	• 태국 4.0 정책 추진 • 20년 국가발전전략 연계

자료: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www.nesdc.go.th); KDB 미래전략연구소(2019), 『태국·말레이시아 협력 확대 방안 연구』를 기초로 작성함

○ 태국 정부는 12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의 핵심 전략이자 혁신주도 경제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태국 4.0' 정책을 추진하였음

- 태국 4.0 정책은 태국 1.0(농업), 태국 2.0(자동차, 전자), 태국 3.0(관광, 의료, 물류)에서 발전하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혁신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태국 4.0 정책하에 주로 육성할 산업은 기존 산업인 ① 차세대 자동차, ② 스마트 전자제품, ③ 의료·웰빙 관광, ④ 농업·바이오 기술, ⑤ 미래형 식품과, 미래 산업인 ① 로봇틱스, ② 항공·물류, ③ 바이오연료·바이오화학, ④ 디지털, ⑤ 의료 허브화이며, 지리적으로는 동부경제회랑(East Economic Corridor; EEC)을 집중 개발할 예정임
 - 동부경제회랑은 소요 예산 및 면적 측면에서 아세안 최대 규모의 개발프로젝트이며, 미얀마·태국·라오스·베트남을 연결하는 동서경제회랑과 태국·라오스·중국을 연결하는 남북경제회랑을 중심으로 함

○ 또한 태국 정부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핵심 목표로 2017년, '20년 국가발전전략(20 year National Strategy 2017~2036)'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꾸준히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 태국의 20년 국가발전전략은 6대 우선전략과 4대 지원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전략은 ① 국가안보, ② 경쟁력 향상, ③ 인적자원 개발·제고, ④ 사회적 기회·평등 확대, ⑤ 환경 친화적 개발·성장, ⑥ 행정 개혁임
 - 6대 우선 전략은 ① 인적자원 잠재력 개발, ② 정의 구현 및 사회 불평등 해소, ③ 경제 증진 및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 ④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친환경 성장 추진, ⑤ 번영과 지속가능성 달성을 향한 국가개발을 위한 국가 안정, ⑥ 공공부문 효율성 및 거버넌스 강화임

- 4대 지원전략은 ① 인프라 및 물류 개선, ② 과학·기술·연구·혁신 향상, ③ 도시·지역·경제 구역 개발, ④ 국제개발협력 지원임

○ 2023년 태국 경제는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관광산업 회복에 따라 성장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는 2023년 태국의 경제성장률을 2.7~3.7%로 전망하였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도 각각 3.4%, 3.6%의 성장을 예측함
 -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바트화 가치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망치에 못 미칠 가능성도 상존함
- 태국은 소득 계층별 빈부 격차가 큰 국가에 속하며, 최근 중산층 가구 증가에 따라 즐거움과 경험을 주는 소비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 태국의 민간소비는 중산층 이상의 가구를 중심으로 외식업, 여행업, 고급 브랜드 등에 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3.2% 증가함
 - 2022년 기준 연 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 계층은 5만 명이며, 이 중 30~39세의 고소득 계층이 2만 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음
-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C)는 2023년 수출 목표를 2,930억 달러로 설정하였으며, 중동, 남아시아, 중국,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할 예정임
 - 태국 상무부에 따르면 수출은 2022년 기준 2,8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수입은 3,0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함
 - 한편, 태국국립화주위원회(Thai National Shippers Council; TNSC)는 미국 경기 둔화, 중국 경기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 태국 바트화 가치 변동 등에 기인해 수출이 1~3% 둔화될 것으로 예측함
- 태국 관광산업은 주력산업 중 하나이며, 태국관광협회(ATA)에 따르면 2022년 방문 해외 관광객 수는 1,180만 명임
 - 태국관광협회는 2023년 방문 해외 관광객 수가 2,0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태국 정부는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장기거주비자(Long-Term Resident Visa; LTR Visa)를 도입했으며, 2023년 6월부터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1인당 300바트의 입국세를 징수하기 시작함
- 2022년 11월, 국제신용평가사 S&P글로벌레이팅스와 피치는 인바운드 관광 회복과 공공지출 확대에 기인하여 국가신용등급을 BBB+로 결정함

2. 말레이시아

가. 국가 개요

- 다문화·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음³⁾
 - 입헌군주제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3개 연방직할지(K, 라부안, 푸트라자야) 아래 13개의 연방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왕은 말레이계 9개 주의 술탄 가운데 선출되며 임기는 5년임
 - 연방정부의 수장은 총리로, 국왕에 의해 임명되고 입법부는 상원(선발의회)과 하원(국민대표의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됨
 - 말레이시아는 두 가지 유형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 무슬림을 대상으로 샤리아(Sharia)법이 존재하며, 샤리아법은 각 주 차원에서 결정됨
 - 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70.1%, 22.6%, 6.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공용어는 말레이시아어, 상용어는 영어이며, 그 밖에 중국어, 타밀어를 사용함
 - 국교는 이슬람교(63.5%)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불교(18.7%), 기독교(9.1%), 힌두교(6.1%)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함
 - 말레이시아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51.4%, 산업 39.6%, 농업 9%로 이루어져 있으며,⁴⁾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어 에너지 산업 또한 경제성장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서비스 부문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 중 전자 및 전기(E&E), 화학 및 화학제품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천연가스 순수출국인 말레이시아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및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산업은 말레이시아 GDP의 20%를 차지함
 - 2022년 기준 1인당 GDP는 11,972달러로, 신흥 ASEAN 5⁵⁾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연간 GDP 성장률 8.7%를 기록하는 등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내에서 높은 경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말레이시아의 최저 임금은 한 달 기준 1,500링깃(335달러) 수준으로, 1인당 GDP와 비교하여 크게 낮아 두뇌 유출 및 중진국 함정 문제를 안고 있음⁶⁾
- 말레이시아의 중위연령은 30.3세로 비교적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2030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

³⁾ KOTRA(2023), 국가지역정보-말레이시아

⁴⁾ ADB Data Library(2023), Malaysia key indicators

⁵⁾ ASEAN 5 국가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칭함

⁶⁾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ASEAN 5 국가의 월 최저 임금은 태국 277달러, 인도네시아 300달러, 베트남 200달러, 필리핀 304달러이나, 해당 국가의 1인당 GDP는 말레이시아의 절반 혹은 절반 이하에 불과함

-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고령화율은 7.2%이지만, 2030년 해당 비율은 15.3%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어, 가까운 미래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⁷⁾
 - 말레이시아의 중위연령은 30.3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23년 기준 70.1%로 젊은 인구구조를 보임
 - 다만 2021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75.6세로, 50년 전인 63.6세보다 12년이 늘어났으며 1970년대부터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해, 젊은 인구 비율 및 전체 인구 증가율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⁸⁾
 - 말레이시아의 노년부양비⁹⁾는 1970년대부터 증가세를 보였으며 해당 비율은 2000년대 급속히 증가하여 2022년 기준 10.7명을 기록하였음(한국은 2022년 기준 24.6명)¹⁰⁾
-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1차 계획(1966~1970)¹¹⁾에서 가족계획(산아제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제4차 계획(1981~1985)부터는 인구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했으며, 최근 인구정책은 노인복지 제고에 집중하고 있음
 - 정부는 제1차 계획기간 동안 국민가족계획법(National Family Planning Act No. 42)을 통해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는 1966년 36.7명에서 1985년 31.5명으로 감소함¹²⁾
 - 그러나 1984년 제4차 계획 추진 중 인구 규모와 경제 발전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식하고 1984년 1,260만 명에서 2100년 7천만 인구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인구의 양적 성장에 주목함
 - 1992년 국가인구가족개발위원회(NPFDB) 인구정책 평가 결과, 7천만 인구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으며 예상보다 56년이나 빠른 2014년에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수준(2.1명)에 도달하였음
 - 이후 정부는 인구의 질적 성장에 집중하였으며, 1995년 노인을 위한 국가정책(National Policy for the Elderly)을 시작으로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등 노인복지 제고에 집중함¹³⁾

7) New Straits Times(2022), "Life expectancy in Malaysia rises by 12 years, ageing population by 2030"

8) Universiti Putra Malaysia(2018), "Demography & Population Ageing in Malaysia: Interstate Comparisons and Analysis"

9)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임

10) Fred Economic data(2022), Age Dependency Ratio: Older Dependents to Working-Age Population for Malaysia

11)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방 이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 및 발표해왔으며, 제1차 발전계획(1966~1970)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은 2021년이고, 이에 해당하는 제12차 발전계획(2021~2025)을 발표한 바 있음

12) Malaysia Population Research, "Evolution of Population Policy"

13) Chang Foo Chung, Khairul Hanim Pazim, Kasim Mansur(2020), "Ageing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for Older People in Malaysia"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43414128_Ageing_Population_Policies_and_Programmes_for_Older_People_in_Malaysia

〈부록 표 3〉 말레이시아 주요 국가 지표¹⁾

항목	지표 현황	항목	지표 현황
면적	33만 252km ² (한반도의 1.3배)	인구	약 3,394만 명
생산가능인구	1,731만 명	고령화 비율	8%
소비자물가상승률	3.4%	경제성장률	8.7%
GDP	4,063억 달러	1인당 GDP	11,972달러
기대 수명(남)	73세	기대 수명(여)	77세

주: 1) 기대 수명(2021년 기준)을 제외한 모든 지표는 2022년 기준임
 자료: The World Bank(2023), "World Bank Open Data - Malaysia"

○ 세계 3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¹⁴⁾ 산업은 말레이시아 경제 발전의 핵심 동인임

-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 수쿠크(Sukuk)¹⁵⁾ 발행국으로 세계 무슬림 인구의 2%가 거주하고 있으나 이슬람금융 규모는 세계 이슬람금융 자산의 20%를 차지함¹⁶⁾
 - 1984년 최초의 타카ful(Takaful) 사업자인 Syarikat Takaful Malaysia Bhd가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었으며 1990년 최초로 Shell Malaysia가 수쿠크 채권을 발행한 바 있음
 - 2022년 기준 세계 이슬람금융 자산 규모는 3조 6천억 달러, 2025년 4.9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이슬람 경제는 2025년까지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보여, 2.8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¹⁷⁾
-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 성장률은 13%를 기록하였으며 이슬람금융이 전체 은행 대출의 41%, 현지 채권 발행 중 수쿠크 발행 비율은 64%에 달하였음¹⁸⁾
- 동 산업의 발전은 이슬람금융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등 적절한 규제 환경 조성 and 인프라 개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1994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계 최초로 이슬람 은행 간 단위 자금을 조달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인 이슬람 화폐 시장을 조성하여 자금조달과 유동성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말레이시아는 2013년 이슬람금융서비스법(The Islamic Financial Services Act 2013)을 제정하여 이슬람금융 상품의 샤리아 적합성, 지배구조 등 기준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또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2005년 이슬람금융 전문 대학인 International Centre for Education in Islamic Finance(INCEIF)를 설립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4) 이슬람금융이란 무슬림을 위해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적 해석 과정을 통해 개발된 금융 상품 및 시장을 의미하며, 주류, 담배, 도박 등 반교리적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함
 15) 수쿠크는 이슬람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샤리아 율법상 이자수익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자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분받음
 16) World Bank Group(2020), "Malaysia Islamic Finance & Financial Inclusion"
 17) Dinar Standard(2022),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22"
 18) Fitch Ratings(2023), "Malaysia's Islamic Financing Growth to Continue Outperforming Conventional Banks"

나. 경제

○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방 시점부터 현재까지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경재정책, 국가개발정책, 국가비전정책, 경제변화프로그램 등 장기 정책을 펼쳐왔음

- 말레이시아는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농업 및 광업 산업 위주의 개발 정책을 수립했으나 이후 원유 및 천연가스 관련 에너지 산업을 거쳐 자동차 제조업 및 관광·서비스업, IT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왔음
 - 말라야 계획은 1963년 말레이시아 건국 이전의 경제개발 계획으로, 1·2차 계획에 그침
- 이와 더불어 1971~1990년 신경재정책(NEP), 1991~2000년 국가개발정책(NDP), 2001~2010년의 국가비전정책(NVP), 2011~2020년 신경재모델(NEM)을 통해 부를 재분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함
 - NEP 및 NDP의 핵심은 중국계에게 치우쳐 있던 부를 재분배하기 위함으로, 말레이시아 원주민인 부미푸트라(Bumiputra)에게 경제 특혜를 주었으며 NVP 추진 이래로 '선진국 진입'이 주목표로 자리잡음

〈부록 표 4〉 말레이시아 주요 경제정책 변천

차수	시기	경제 상황 및 주요 정책	정책 주요 목표
1차	1956~1960 (말라야)	영국으로부터의 해방, 세계경기침체	• 농촌 및 고무 산업 개발 • 안보 강화
2차	1961~1965 (말라야)	말레이시아 수립, 싱가포르 분리 독립	• 농촌 개발 • 고용 창출 • 경제성장 및 다각화
1차	1966~1970	5. 13 사태로 인한 인종(말레이인-중국인) 간 갈등 심화	• 보편적 복지 확립 • 소득 수준 제고 • 고용 창출
2차	1971~1975	1차 오일쇼크, 신경재정책(NEP) (1971~1990) 추진, 국영에너지기업 페트로나스 설립	• 사회(인종 간) 통합 • 빈곤 퇴치 • 사회구조 재편
3차	1976~1980	2차 오일쇼크, NEP 2단계	* 2차 계획과 동일
4차	1981~1985	원자재(주석 및 고무) 가격 하락	* 2차 계획과 동일
5차	1986~1990	팜유 가격 하락, 엔고 현상에 기인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증가	• 경제성장 둔화 및 대외부채 증가 극복
6차	1991~1995	NEP에 이은 국가 개발 정책 추진(NDP)(1991~2000) 추진	• 1985~1986년 경기침체 극복 및 고도 경제성 장 유지
7차	1996~2000	아시아 경제 위기(1997~1998), NDP 2단계	• 전 인종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 • 사회 평등 달성
8차	2001~2005	국가비전정책(NVP)(2001~2010) 추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추진	• 2020 국가 비전 확립(인프라 구축 및 사회 부조 강화) •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

(부록 표 4) 계속

차수	시기	경제 상황 및 주요 정책	정책 주요 목표
9차	2006~2010	글로벌 금융 위기, NVP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 제고 •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10차	2011~2015	경제변화프로그램(ETP)(2010~2020)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고소득 경제 구조로의 전환
11차	2016~2020	미래 경제 발전 강국으로서 ASEAN 집중 확대, ETP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포용성 강화 •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적자본 개발 •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지닌 녹색 성장 추구
12차	2021~2025	공동번영 비전 2030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확장

자료: 아태 에너지포털(www.policy.asiapacificenergy.org); Perdana Leadership Foundation(www.perdana.org.my)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 후반까지 연평균 9%대 고성장 달성과 더불어 독자적인 방식으로 아시아 외 환위기를 극복하였으나 성장동력이 부족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중국권 함정에 빠지게 됨¹⁹⁾
 - 말레이시아는 1970~1990년대 중반까지 농업 및 광업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 제조업 위주의 구조 전환, 전자 및 수출 지향 산업 집중 투자를 통해 연평균 경제성장을 8%대의 고도성장을 이루어냈음
 - 고도성장은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사회 결속력을 제고하고 금융 제도 규제 완화 및 자유화와 맞물린 경제 다각화는 말레이시아를 중등소득 이머징마켓(Middle-income emerging market)으로 변화시킴
 - 말레이시아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는데, 1997년 긴축금융정책을 거쳐 1998년 초 경기부양 및 금리인하, 1998년 말 자본유출 봉쇄를 위한 자본통제를 실시하였음
 - IMF의 지원을 받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초래한 대내적 요인 제거 및 예방에 집중한 반면, 말레이시아는 해외 투기자본 유출을 위기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대외 요인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함²⁰⁾
 - 2010년 1인당 GDP 1만 달러에 진입하였으나, 2022년 11,972달러로 12년째 1만 달러에 정체된 상태인데 장기집권과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 부족 현상이 그 원인으로 지적됨²¹⁾
 - 말레이시아에서는 장기집권층의 부정부패, 낮은 인건비로 인한 두뇌 유출 현상, 친 부미푸트라 정책으로 인한 인종 차별 문제 등이 경제성장을 늦추는 요인으로 자리잡음
-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동아시아 내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지위 제고를 위해 6대 핵심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프레임워크 이코노미 마다니(Ekonomi MADANI)²²⁾를 추진 중임²³⁾

19) IMF(2001), "Malaysia: From Crisis to Recovery"

20) 이규선(2008),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비교: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21) KDB미래전략연구소(2019), 「제2차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정책과 한·말레이시아 협력 확대 방안」

22) MADANI는 6대 핵심 가치를 말레이시아 단어로 축약한 용어로, 단어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음: ① keMampanan(지속가능성), ② kesjAhteraan(번영), ③ Daya cipta(혁신), ④ hormAt(존중), ⑤ keyakiNan(신뢰), ⑥ lhsan(연대)

23) KOTRA 해외시장 뉴스(2023), "이코노미 마다니: 말레이시아 경제 프레임워크 소개"

- 이코노미 마다니는 학교, 진료소 등 기본 인프라 개선, 사회 급부 확대를 통한 국민층 퇴치를 단기 극복 과제로 인식하고, 중장기 과제로서 10년 내 달성할 7대 중간 목표를 설정함
 - 7대 중간 목표는 ① 세계 30대 경제대국 진입 ②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12위권 진입 ③ 전체 소득 대비 노동 소득 45% 달성 ④ 여성의 노동 참여율 60%까지 확대 ⑤ 인력개발지수(HDI) 25위권 진입 ⑥ 부패인식지수 25위권 진입 ⑦ 재정 적자율 3% 이하 유지 및 지속가능성 지향¹⁾
- 동 프레임워크는 '아시아 경제 선도를 위한 이니셔티브' 및 '민생경제 회복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각 목표에 해당하는 정책을 소개함
 - '아시아 경제 선도'에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통합 강화,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이슬람 경제 육성,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정책이 포함됨
 - '민생경제 회복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는 근로임금 인상, 평등(성별, 인종, 종교 등) 정책, 사회보장 확대, 의료, 교육 및 주택개혁, 기본 시설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코노미 마다니는 향후 공표될 국가에너지 전환 로드맵,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 등 후속 개혁안의 정책적 토대가 될 예정임

3. 호주

가. 국가 개요

- 다문화·다민족 국가인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 및 생물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농수산·광업형 산업과 금융·보험 및 관광 등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이 공존하며 여타 선진국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²⁴⁾
 - 호주 인구 약 2,650만 명 중 29%에 달하는 770만 명이 해외 출생자인 것으로 파악되며, 약 200개국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들과 원주민이 다양한 문화, 민족, 언어,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공존하면서 다문화·다민족 사회를 구성함²⁵⁾
 - 종교는 기독교가 43.9%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이슬람교 3.2%, 힌두교 2.7%, 불교 2.4% 등임
 - 주요 출신 국가는 영국계 33%, 호주계 29.9%, 아일랜드계 9.5%, 스코틀랜드계 8.6%, 중국계 5.6% 등이며, 언어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약 40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됨
 - 호주의 산업구조는 농수산·광업형 산업과 금융·보험, 관광 등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이 공존하는 양면적

²⁴⁾ KOTRA(2021), 「국가지역정보-호주」

²⁵⁾ ABS(2023. 10), "Australia's Population by Country of Birth"

형태를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함

- 호주 전체 GDP 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금융, 보험, 관광, 의료 등 서비스업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농수산업과 광업 등 1차 산업이 약 13%를 차지함
- 특히, 호주는 선진 금융 국가로 호주 달러는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화폐이며 운용 펀드액 기준 세계 5위, 주식시장 규모로는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음
- 호주는 2022년 GDP 기준 12위를 차지(세계 GDP의 1.7%)할 만큼 경제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타 선진국 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에는 이민 정책에 따른 꾸준한 인구 유입이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러한 호주의 인구정책에 따라 경제순위가 세계 8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됨²⁶⁾
 - 호주의 출산율은 현재 인구 유지 출산율인 2.0명을 밑돌고 있지만 연간 약 16만 명의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100년 4,2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호주의 정치 구조는 미국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주권에 입각한 내각책임제가 혼합된 형태이며, 행정 구역은 6개의 주(State)와 2개의 준주(Territory)로 구성되어 연방정부는 연방 총독, 주 정부는 주 총독이 영국 국왕을 대리하여 연방과 주를 대표함
 - 호주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안은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고 총독이 승인하면 법으로서 성립됨

〈부록 표 5〉 호주 주요 국가 지표¹⁾

항목	지표 현황	항목	지표 현황
면적	769만km ² (한반도의 약 35배)	인구	약 2,647만 명
생산가능인구	약 828만 명	고령화 비율	17.1%
소비자물가상승률	7.8%	경제성장률	3.6%
GDP	1조 6,754억 미국 달러	1인당 GDP	64,491 미국 달러
기대 수명(남)	81.3세	기대 수명(여)	85세

주: 1) 기대 수명은 2021년, 경제지표는 2022년, 인구 지표는 2023년 3월 기준임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World Bank Open Data"

- 호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친기업 환경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유치에 확대시킴
 - 호주는 낮은 법인세율,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 규제를 바탕으로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높은 금융

26) Stein Emil Vollset et al.(2020), "Fertility, mortality, migration, and population scenarios for 195 countries and territories from 2017 to 2100: a forecasting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The Lancet

효율성 및 다수의 자유무역협정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적 연계를 통해 여러 외국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함

- 호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0년 초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 8.3%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외국인 투자 가치는 약 4조 4천억 호주 달러에 이룸
- 외국인 최대 직접투자 유치 분야는 광업(34%)이었으나, 2017~2021년 5년간 증가율이 10% 이상인 업종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낸 산업은 과학 및 기술(17% 증가) 분야와 금융 및 보험업(12% 증가)이었음
 - 호주 정부는 최근 외국기업 호주 금융서비스 면허 취득 조건을 완화하는 등 금융 및 보험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자 함²⁷⁾

나. 경제

- 호주 경제는 1991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경험한 이후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에도 경기 침체 없이 위기를 벗어남으로써 선진국 중에서 약 30년 동안 안정적 성장을 이룩한 유일한 국가임²⁸⁾
 - 호주는 1980년대까지 높은 교역장벽과 규제, 경직된 노동시장의 영향으로 다른 OECD 국가 대비 낮은 생산성과 소득수준을 경험함
 - 호주 정부는 낮은 성장률을 극복하고자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구조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2000년대 이후 호주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됨(표 2) 참조²⁹⁾
 - 1980~2000년대 호주의 경제개혁은 크게 3가지 측면인 시장 개방, 시장경쟁 강화, 거시경제 펀더멘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 내부적인 개혁과 더불어 외부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호주 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투자 확대로 유입된 자금이 부동산, 금융 등 서비스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호주 경제성장 견인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대내외 경제개혁 이외에 호주 경제가 2000년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이주민 증가에 따른 타 선진국 대비 양호한 인구성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교역 증대 트렌드, 균형 있는 산업 간 발전 등이 있음³⁰⁾

27) 이대원(2023), 「외국기업 호주 금융 서비스 면허 취득 조건 완화」, KIPA Regulatory Trends

28) Parliament of Australia(2019), "27 years and counting since Australia's last recession"; 윤재성(2017), 「호주 경제 현황 및 전망: 취약점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확보」, 「나이스신용평가 NICE Issue Special Report」

29) IMF(2015. 10), "Structural Reforms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s: Country Cases"

30) The Atlantic(2018. 12), "Why Hasn't Australia Had a Recession in Almost 30 Years?"

〈부록 표 6〉 호주 주요 경제정책 변천

시기	총리(당)	경제 상황	주요 정책 내용
1983~1991	볼 호크 (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년 오일쇼크 영향으로 경기불황 • 1987년 세계 증권시장 불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할 '캠벨조사위원회' 발족 • 캠벨위원회는 외환 자유화, 금융시장 규제 완화, 진입 제한 철폐, 관세 제도 폐지 등 건의안 제출 • 금리 자유화 • 변동환율제 도입 시도 • 공기업의 민영화(대규모 부실 은행 민간에 매각) • 저소득층 재정지원 확대,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어(Medicare) 도입
1991~1996	폴 키팅 (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침체 • 대공황 이후 실업률 최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적 재정정책 • 정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One Nation' 발표 • 고정환율제 폐지 • 연금제도 강화(Superannuation의 시작) • 대형 국영기업의 독점력을 제한하는 경쟁 정책 도입 • 캠벨위원회 이후 '왈리스 조사위원회' 발족 • 관세 인하 건의
1996~2007	존 하워드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팅 정부의 큰 재정적자 • 보험회사 HIH 파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왈리스 위원회가 금융감독기구 통합 및 공시제도 강화에 대한 건의안 제출 • 부가가치세 도입, 개인 소득세 감축 • 연금제도 개선: 정상 연금 수령 비과세화 • 금융규제감독 쌍봉기구(Two peaks) 채택 • 보험회사 HIH 파산 관련 '왕립 조사위원회' 발족
2007~2010	케빈 러드 (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금융위기 • 인플레이션 • 경기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52억 호주 달러 이상의 국가 부양책 도입 • 자원초과이익세 도입 시도 • 탄소세 신설
2010~2013	줄리아 길라드 (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드 정권 자원초과이익세에 대한 광산업계 갈등 • 2008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 경제 성장세 진입 • 가물·산불 등 기후변화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애보험 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도입 • 자원초과이익세(Mineral Resource Rent Tax) 도입 → 2012년 7월부터 30%의 세금이 광산산업에 적용, 세수입에 따라 법인세 감축, 사회기반시설 건설, 연금 등에 사용 계획 발표·논의 지속 • 기후변화위원회 설립 탄소세 도입 논의 구체화
2013~2015	토니 애벗 (자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수지 적자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dget emergency: 예산흑자회복을 위한 국가감사위원회 설립 • 중국, 일본,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 북호주 개발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백서 제작 • 중소기업 부양책

〈부록 표 6〉 계속

시기	총리(당)	경제 상황	주요 정책 내용
2015~2018	멜컴 터블 (자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가격과 시중 이자율 상승 • 소비심리 악화 • 재정수지 흑자전환 지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출 감소 • 사회안전망 및 복지 지출 건전성에 대한 조치를 통해 세입 확대 계획
2018~2022	스콧 모리슨 (자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이후 첫 경기침체 • 코로나19 경제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 발표 • 코로나19 경제적 지원

자료: Australian Treasury Working Paper(2018.10), "Australia's Experience with Economic Reform"; Parliament of Australia; 홍승연 외(2012), 『호주의 재정 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선티즈 기사(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3/02/16/2003021670183.html, 2023년 12월 22일 접속)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그러나 호주 경제는 2020년 대규모 산림화재에 이어 코로나19 충격,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 등으로 30년 만에 경기침체를 경험하였고, 최근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둔화 및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음
 - 호주는 2020년 1분기 -0.3%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7%로 연속 역성장률 기록하며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였음
 -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를 경험한 호주 경제구조를 점검하며 1차 산업에 치중된 수출구조와 높은 대외자금 조달,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호주 경제성장의 위협요인으로 지적함
 - 2021~22년 호주 전체 수출액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수출 비중은 약 30%인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호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역대 최고치(2022년 기준 7.8%)를 기록하자 호주중앙은행(RBA)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12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인상하였으며(2023년 11월 기준 4.35%),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신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
- 2022년 5월 출범한 신정부는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Powering Australia'를 표방하고 있으며,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수소, 신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호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함³¹⁾
 - 자유당 소속 스콧 모리슨 총리 집권 당시 2019년 산불 사태와 2022년 중국-솔로몬제도 간 안보 협정 체결로 국내외 리스크가 확대되자, 2022년 노동당이 호주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생계비 부담 완화'와 '기후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앤서니 알바니즈가 31대 총리로 취임함
 - 신정부는 호주를 저배출 기술을 주도하는 세계적 리더로서 탄소중립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2022년 6월

31) KOTRA(2023), 『해외시장뉴스-호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 5), 『2022년 호주 총선 결과와 새 정부의 정책 전망』

2030년까지 호주의 탄소중립 목표 기준을 26~28%에서 43%로 상향 조정하였고, 탄소제로 목표를 2050년으로 세움

- 2023년 3월 기후 대응 정책인 세이프가드 매커니즘(Safeguard mechanism) 개혁 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 미래 에너지원 산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 및 민간기업 인프라 투자 촉진이 기대되며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위한 전기차 수입 관세 인하 및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22년 8월에는 첫 번째 전기자동차 고위급회담(Electric Vehicle Summit)를 개최하고 전기차 활용 증진을 위한 연료 효율 기준 개선안 등을 소개하기도 함

저자약력

- 김성균**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 연구원
E-mail : ksk7757@kiri.or.kr
- 김연희** 성균관대학교 문화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eonhee@kiri.or.kr
- 이승주**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학 석사 / 연구원
E-mail : sj_lee@kiri.or.kr
- 장윤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 연구원
E-mail : yunmi.jang@kiri.or.kr
- 김윤진** City, University of London 보험계리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oonjinkim@kiri.or.kr
- 이소양**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lishaoyang@kiri.or.kr

2023 해외보험리포트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발행일	2024년 3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